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李 玟 雨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현대중국어 다의어 ‘有’의
의미 연구

2012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南 秀 珍

현대중국어 다의어 ‘有’의
의미 연구

李 玟 雨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南 秀 珍

認 准 書

南秀珍의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논문 개요

현대 중국어 ‘有’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다의어(多义词) 동사이다. 동사 ‘有’는 고문(古文), 현대문(现代文), 구어체(口语), 문어체(书面语)를 막론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며 나타내는 의미와 구조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문형에서 드러나는 ‘有’의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각각의 개별 의미들은 모두 다의어 ‘有’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성분들로 의미적 관계성을 매개로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有’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들의 분화과정과 그 의미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有’에 대한 연구는 개별의미연구와 어휘현상연구 위주로 ‘有’의 의미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세기 이후 언어학 분야에 등장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有’의 의미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지주의에서는 다의어에 대해 하나의 낱말이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들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다의관계는 범주화의 원형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의미간의 관계성은 인지과정인 의미 확장 기제들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이와 같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有’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이 어떤 동일한 하나의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매개로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에 앞서 제 2장에서는 인지의미론에서 보는 다의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다의어의 의미형성에 어떠한 인지적 기제들이 작용되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제 3장에서는 ‘有’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사전류와 저서들이 언급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다양한 문형 속에 나타나는 ‘有’의 의미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들 사이에 관계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제 4장에서는 현대중국어 ‘有’의 원형의미를 분석하여 공시적 관점에서 원형의미가 영상도식, 은유, 문법화 등의 인지적 확장 기제를 통해 어떻게 확장의미로 전의되는가를 고찰하였고 통시적 관점에서 ‘有’가 확장의미로 전의될 때 작용된 인지적 기제들을 시대별로 고찰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有’의 여러 의미들이 ‘소유’라는 원형을 중심으로 상호 관련성을 띄며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의미망으로 그려내었다.

제 5장에서는 분석한 ‘有’의 의미관계를 어휘 교육적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제 6장은 결론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

目 次

논문개요

I. 서론

1.1.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	1
1.2. 기존의 연구 검토 및 연구 동향	2
1.3. 연구 범위 및 방법	6

II. 이론적 검토

2.1. 다의관계	8
2.2. 원형이론	8
2.3. 의미 확장의 기제	10
2.3.1. 영상도식	11
2.3.2. 은유와 환유	12
2.3.3. 문법화	15

III. ‘有’의 사전적 의미 분석 및 구문 의미 분석

3.1. 사전별 의미 비교	17
3.2. 사전적 의미의 분석	24

3.2.1. 소유	25
3.2.2. 존재	26
3.2.3. 발생 혹은 출현	30
3.2.4. 추측 또는 비교	31
3.3. ‘有’ 구문의 의미 분석	33
3.3.1. NP1 + 有 + NP2	34
3.3.2. NP1 + 有 + NP2 + X	38
3.3.3. NP1 + 有 + VP	39
3.3.4. NP1 + 有 + NC / NP2 + Adj	41
3.3.5. 소결	43

IV. ‘有’ 의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4.1. ‘有’ 의 원형의미	46
4.2. 영역의 전환에 의한 의미 확장	48
4.3. 문법화에 의한 의미 확장	51
4.4. 의미 확장 방식의 시대별 고찰	55
4.5. 소결	61

V. ‘有’ 의 지도 방안

5.1. 마인드맵을 활용한 지도 방안	65
5.2. 다의의 나무 그리기를 활용한 지도 방안	68

5.3. 의미 심층 학습을 통한 지도 방안 ————— 70

VI. 결론 ————— 73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1. 연구 동기 및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 ‘有’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有’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동사 ‘有’는 고문, 현대문, 구어체(口语), 문어체(书面语)를 막론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 둘째, 동사지만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지 않고 다양한 성분들과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낸다.¹⁾ ‘有’는 동사로서 ‘소유하다, 존재하다, 출현하다, 발생하다, 추측하다, 비교하다’ 등의 어휘의미를 나타내고 ‘人’, ‘一天’, ‘时(候)’ 등과 결합하여 관용적 표현으로도 사용되며 ‘有请’ 등과 같이 다른 낱말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복합어로도 사용된다.

동사 ‘有’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은 상호 관련성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하나의 배경을 바탕으로 다의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의미를 지닌 ‘有’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들의 분화과정과 그 의미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야한다.

1) 马建忠(1898)은 ‘有’는 행위를 기록하지 않고 단지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同动字(词)라고 하였고 黎锦熙(1997)도 ‘有’를 同动词라 하였고 다시 同内动的 ‘有’와 同外动的 ‘有’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吕叔湘(1982)은 ‘有’를 ‘同动词’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보통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丁声树(1961)는 ‘有’는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였고 高耀墀(1975)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臧开第(1981)는 ‘有’는 존재를 나타내고 관계도 표시하는 동사라고 하였다. 중국 언어학계의 ‘有’의 문법 성질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有’가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동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견을 보인다.

20세기 이후 언어학 분야에 등장한 인지언어학은 기존의 형식주의 관점과 대립을 이루었다.²⁾ Lakoff(1987)와 Langacker(1987) 이후로 현재까지 인지 언어학에 대한 수많은 논문, 단행본들이 출간되고 있고 그 이론적 적용 분야 또한 의미론, 음운론(형태론), 화용론, 유형론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지 의미론이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인지 의미론의 공헌 가운데 하나는 다의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인지 의미론에서는 다의어는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그 적용의 범주가 전이되고 확장되는데 이러한 확장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을 하나의 범주로 해석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이에 이러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통해 동사 ‘有’의 의미상 상호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기존의 연구 검토 및 연구 동향

현대 중국어에서 동사인 ‘有’에 대한 연구는 《马氏文通》에서 시작되었다. 1942년 呂叔湘《中国文法要略》에서 정식으로 ‘有자문(有字句)’³⁾이 제시되었고 이때부터 ‘有자문’이 하나의 구식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
- 2)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이란 언어를 보다 더 일반적인 인지능력 내에 위치시키는 언어연구의 접근법으로 객관주의 의미론과 대비되는 언어연구의 새로운 관점이다. 구조언어학이나 변형생성언어학에서 언어외적측면에서 언어지식을 주의력, 기억력, 추리력 등의 다른 정신능력과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언어내적 측면에서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은 각각의 독립적인 구성단위를 형성한다고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 외적인 측면에서 언어사용의 원리는 일반적인 인지원리의 구체화라고 보고 언어 내적인 측면에서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을 망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지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종래의 패쇄적이고 자율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사고의존적인 시각으로 언어의 구조와 의미의 문제를 밝히려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인지언어학은 그 이론의 성립과 체계화 과정에서 의미와 문법이 중심적인 연구대상이 됨으로써 Lakoff(1987)에 의한 인지 의미론과 Langacker(1987)에 의한 인지문법이 인지언어학의 다른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다. 임지룡(2008 : 6, 106) 참조
- 3) 有자문은 일반적으로 ‘有’를 술어 동사로 취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중국 어법학계에서는 有자문의 범위를 협의(狭义)의 有자문과 광의(广义)의 有자문으로 나눈다. 협의의 有자문은 ‘有(沒有)’가 술어 혹은 술어 중심어로 쓰이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견해를 지닌 학자로는 呂叔湘, 刘月华 등이 있다. 광의의 有자문은 ‘有’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가리키며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로는 臧开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협의의 有자문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다.

50년대 이후 ‘有자문’에 대한 연구는 구조분석에 편중되었다. 瞻开第(1981)⁴⁾는 연구범위를 동사 ‘有’와 그 부정형식인 ‘没(有)’를 포함한 문장까지로 설정하고 동사 ‘有’와 그 전후에 출현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수량구 등이 동사 ‘有’와 어떠한 어미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초보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명사, 동사, 형용사, 수량구 등이 출현하는 상황에 따라 ‘有자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12가지로 분류하여 ‘有자문’의 구조를 비교적 세밀하고 전면적으로 다루었다. 易正中(1994)⁵⁾은 현대 중국어에서 ‘有’는 비교적 특수한 동사로 행위동작을 나타내지 않고 사물의 모종의 관계를 나타내며 또한 존재나 평가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며 이처럼 ‘有’가 특수한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서로 다른 구조를 형성하여 다양한 의미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NP1 + 有 + NP2’를 ‘有’의 전형적인 구조로 설정하고 NP1과 NP2의 문장 중 생략관계에 따라 구문을 3종류로 나누어 ‘有’의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구조 특성에 따라 ‘有자문’의 구조를 크게 간단한 형식의 ‘有자문’과 복잡한 형식의 ‘有자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90년대 이후 ‘有자문’에 대한 연구는 더욱 깊어져 문법구조분석 위주의 분석에서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나 화용까지도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张豫峰(1998)⁶⁾은 ‘有자문’에는 광의의 ‘有자문’과 협의의 ‘有자문’ 두 종류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그 중 협의의 ‘有자문’이 연구대상에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견해를 보였고 설정한 협의의 ‘有자문’에서의 ‘有’가 소유, 존재, 추측과 비교, 출현 혹은 발생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간단하게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有자문’의 통사구조 또한 고찰하였다.

张豫峰(1998)⁷⁾은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비

4) 瞻开第(1981), 〈‘有’字句〉, 《中国语文》, 第1期

5) 易正中(1994), 〈‘有’字句研究〉, 《天津师范学报》, 第三期

6) 张豫峰(1998), 〈‘有’字句研究综述〉, 《人大复印资料语言文字学》, 第9期

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을 크게 비교주체(比較主体), 비교객체(比較客体), 비교점(比較点), 비교치(比較直), 비교사(比較詞, ‘有,没(有)’를 말함) 다섯 가지로 나누고 통사성분에 출현하는 어휘에 따라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서로 다른 통사층위 관계 분석에 입각하여 각 층위의 구조적 차이를 논하였다. 또한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의 의미특징과 구성성분 간의 의미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고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의 화용상의 특징 또한 논하였는데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으로 나누어 화용상의 차이가 있음을 논하였고 다른 비교문과도 화용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에 대해 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90년대 이후 张豫峰, 林泰安 등이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삼개평면(三个平面)이론⁸⁾에 입각하여 구조, 의미, 화용방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尹鍾宏(2001)⁹⁾ 또한 삼개평면이론에 입각하여 ‘有자문’을 의미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사적으로 ‘有자문’을 크게 4가지 작제는 12종류로 분류하고 ‘有자문’의 NP1과 NP2의 어휘성질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NP1+有+NP2) + X’ 중 ‘有자문’의 후속성분인 X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또한 의미론적 측면에서 ‘有자문’의 의미를 영속(領屬), 소유(領有), 존재(存在), 소유(소유방식(領有方式)) 또는 존재(존재방식(存在方式)), 발생(发生), 추측(估量)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의미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였고 ‘정도부사 + 有 + NP2’,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 NP2가 수량사인 ‘有자문’의 의미특징

7) 张豫峰(1998), 〈表比較的‘有’字句〉, 《语文研究》, 第4期

8) 삼개평면(三个平面)이론은 范晓가 1985년 胡裕树와 함께 《试论语法研究的三个平面》을 발표한 후 많은 학자들이 어법연구에 핵심으로 삼은 연구방법론으로 어법연구시 통사, 의미, 화용 중 어느 한 평면만을 연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론이다. 다시 말해 어법연구시 통사, 의미, 화용 이 세 측면을 분리,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만 비로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9) 尹鍾宏(2001), 〈‘有’字句〉,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도 함께 논하였으며 후속성분 X의 의미지향과 ‘V有’의 이중의미 특징도 설명하였다. 나아가 ‘有자문’의 표현유형을 화용적으로 분석하고 ‘有자문’의 변형, ‘名1 + 有没有 + 名2’, 후속성분 X, 비교를 나타내는 ‘有자문’에 대해서도 화용적으로 기술하였으며 ‘有자문’의 정태적, 동태적 묘사 상황을 소개하였다.

90년대 이후 많은 어법학자들이 삼개평면이론에 입각하여 ‘有’를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통사위주의 연구가 많았다.

의미를 분석한 초기 연구로는 张豫峰(1999)¹⁰⁾의 논문을 들 수 있다. ‘有’의 앞부분과 ‘有’의 뒷부분의 의미관계를 통해 ‘有자문’의 의미를 영속(领属), 소유(领有), 존재(存在), 소유(소유방식(领有方式)) 또는 존재(존재방식(存在方式)), 발생(发生), 추측(估量)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¹¹⁾ 또한, ‘有자문’의 의미구조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很+(有+宾语)’의 의미를 간략하게 논하였다. 朴起贤(2004)¹²⁾는 다양한 용법 혹은 의미들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중국어 동사 ‘有’의 다양한 의미들을 모두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소유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개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람이 구체적인 사물을 소유하는 것을 ‘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보았고 소유자가 사람이나 생명체 외에 무생물에까지 확대하면 존재의 경우도 소유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출현이나 발생은 ‘有’ 자체의 의미라기보다 동태 조사 ‘了’나 목적어의 의미와 관계된 것으로 ‘有’ 자체의 의미만 놓고 보면 역시 소유로 해석이 가능하고 도달의 의미도 소유의 대상을 상태로 본다

10) 张豫峰(1999), 〈‘有’字句的语义分析〉, 《中州学刊》, 第3期

11) 위의 논문. ‘有’字句的表义类型基本上可以分为以下六种:

1. 表领属关系的‘有’字句 例) 每台机器有近百个零件。
2. 表领有关系的‘有’字句 例) 他也有爸爸。
3. 表存在关系的‘有’字句 例) 地上还有一张纸。
4. 既表领有(或存在)也表领有(或存在)方式的‘有’字句 例) 妈妈养有一只狮子狗
5. 表发生关系的‘有’字句 例) 我们和男生间的情节有发展。
6. 表估量关系的‘有’字句 例) 爷爷足有七十岁。

12) 朴起贤(2004), 〈现代汉语动词‘有’的语义功能〉, 《南开语言学刊》

면 이 역시도 상태의 소유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有’의 의미와 그 의미관계성을 인식상의 기초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또한, 90년대 이후 일부 학자들은 현대 중국어 속의 ‘有’의 연구와 더불어 고대 중국어 속의 ‘有’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林庆姬(1996)¹³⁾는 고문(古文)과 현대문(现代文)속의 ‘有’의 용법을 22개 유형 39가지의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고문에서 주로 보이는 8가지 용법과 현대문에서 주로 보이는 6가지 용법, 8종류의 ‘有’로 구성된 문장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古代汉语에서의 ‘有’의 주된 기능은 소유, 소속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였으나 근, 현대(近现代)에 이르러 연동문(连动句), 겸어문(兼语句), 비교문(对比句) 등의 다양한 용법이 형성되어 기본의미 이외의 다양한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송경옥(2004)¹⁴⁾은 동사 ‘有’의 문법화 현상을 고찰하고 ‘有’의 문법화 과정을 완전동사(소유, 존재) > 부분 조동사 > 형식동사 > (완료상표지)조동사라고 정리하고 주로 형식동사로 쓰이고 있는 현상과 상표지로 쓰이기 시작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통시적 관점의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연구 범위 또한 협소하나 ‘有’의 연구에 새로운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현대중국어 ‘有’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개별의미연구와 어휘현상연구 위주로 의미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有’의 원형의미를 분석하고 각 의미들의 관계성에 대해 공시적, 통

13) 林庆姬(1996), <‘有’자 용법 연구>,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4) 송경옥(2004), <동사 ‘有’의 문법화 현상 연구>, 《중어중문학》, 제34집

시적 관점에서 논하며 나아가 분석한 의미관계성을 ‘有’의 어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15)

제 2장에서는 인지의미론에서 보는 다의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다의어의 의미형성에 어떠한 인지적 확장기제들이 작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有’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사전류와 저서들이 언급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또한 다양한 문형 속에 나타나는 ‘有’의 의미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현대중국어 ‘有’의 원형의미를 분석하여 공시적 관점에서 원형의미가 어떠한 인지적 확장 기제를 통해 확장의미로 전의되는가를 고찰하고 통시적 관점에서 ‘有’가 확장의미로 전의될 때 작용된 인지적 기제들을 시대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분석한 ‘有’의 의미관계를 어휘 교육적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6장은 결론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 정리한다.

15) 다의어의 확장개념에 대해 학자마다 ‘원형의미 - 확장의미’, ‘중심의미 - 주변의미’, ‘기본의미 - 주변의미’ 등 강조하는 초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원형의미 - 확장의미’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본고에서도 ‘원형의미 - 확장의미’ 용어를 사용하겠다.

II. 이론의 검토

현대 중국어 동사 ‘有’의 의미 분석에 앞서 인지 의미론에서 보는 다의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의미 형성에 어떠한 인지적 기제들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다의관계

다의성에 대하여 Lakoff(1987)는 관련된 의미들이 가족을 이루며 하나의 어휘항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 하였고 Taylor(1989)는 하나의 언어의 형태에 둘이나 그 이상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임지룡(1992)은 하나의 어휘소에 유연성을 지닌 둘 이상의 복합적 의미관계라고 정의하였다. 16) 이와 같이 인지의미론에서는 다의관계를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들이 의미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의관계는 범주화의 원형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의미 간의 관계성은 인지과정인 의미 확장 기제들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2. 원형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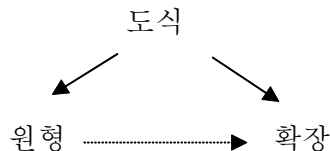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은 Rosch(1975)의 심리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자연 범주의 내부 구조는 중심적 원소인 원형과 그로부

16) 임지룡(1998 : 1) 참조

터 확장된 주변적인 원소가 ‘방사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새’의 범주를 살펴보면 ‘참새’나 ‘까치’처럼 새다운 보기를 비롯하여 ‘타조’나 ‘펭귄’처럼 새답지 않은 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새’의 ‘원형’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전형적·중심적·이상적 보기로서 ‘새’에 대한 인지적 참조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발상은 Lakoff(1987), Langacker(1987), Taylor(1995) 등에 의해 수정, 보완되면서 다의관계를 비롯하여 언어의 의미 현상을 파악하는 인지언어학의 기본원리로 정착되었다.

원형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한 단어의 다의관계에는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와 확장미(extended meaning)가 있다. 원형의미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하며 확장미란 원형의미에서 파생되고 전의된 의미를 말한다. 다의관계의 원형의미와 확장미는 의미망(semantic network) 구조와 의미연쇄(meaning chain)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Langacker(1987)의 의미망구조란 다의어는 원형과의 유사성을 통하여 수평적으로 ‘확장(extension)’ 관계를 형성하고 원형과 확장의 공통성을 추상화하여 수직적으로 ‘도식(schematicity)’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확장파도식의 관계가 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 그림 1 - 망모형 > 17)

17)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2005 : 153) 참조

<그림 1> 은 두 가지 유형의 범주화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범주화 관계는 원형에서의 확장이다. 원형에서의 확장은 [원형]→[확장]으로 나타낸다. 원형에서의 확장을 점선화살표로 나타낸 것은 [확장]이 [원형]과 양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에 의해서 범주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의 범주화 관계는 도식에 대한 정교화 관계이다. 이는 [도식]→[원형, 확장]으로 나타낸다. 이를 실선화살표로 묘사한 것은 [원형, 확장]이 [도식]보다 더 정교하고 상세하기 때문이다.¹⁸⁾

망의 기본구조는 확장과 도식의 순환 작용에 의해 복합적인 망으로 확대된다. 원형이 수평으로 확장되는 경우 수직으로의 발달이 동시에 발생한다.¹⁹⁾

의미연쇄구조는 Wittgenstein(1958)의 ‘가족닻음’의 원리로 다의어는 원형을 중심으로 인접항 간의 의미연쇄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고 주장한다.²⁰⁾

위에 제시한 의미망구조와 의미연쇄구조를 통해 다의어는 원형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 적용의 범주가 전이되고 확장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을 하나의 범주로 해석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능력을 통한 범주화가 가능한 것은 원형의 의미와 다양한 확장 의미의 과정을 통합하는 인간의 인지적 유연성 때문이다.

2.3. 의미 확장의 기제

다의어의 생성원리에 대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인접성과 유사성에 의한 전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접성의 인지능력이 ‘환유(metonymy)’이고 유사성의 인지능력이 ‘은유(mataphor)’이다.

18)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2005 : 153) 참조

19)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2005 : 154) 참조

20)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2008 : 109) 참조

은유나 환유에 의한 의미 확장 외에도 ‘영상도식(imageschemas)’ 과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에 의해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이러한 의미 확장 기제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2.3.1. 영상도식

인지언어학은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체험적으로 접근한다. 체험주의에 따르면 의미란 사람의 생물학적 능력 및 사람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신체적, 사회적 경험에 기초해서 묘사되는 것이다.²¹⁾ 또한,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개념을 형성하며 기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더욱 더 구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개념화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경험을 Lakoff(1987)와 Johnson(1987)은 ‘선개념적(preconceptual)’ 경험이라 하였고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인지모형이 바로 영상도식(image schema)이다.

영상도식은 인간이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지구조로 신체적 경험, 대상조작, 지각적 상호작용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²²⁾ 또한 영상도식은 인간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활동 구조로 추상적인 의미의 영역으로 변형되거나 확장되고 정교화하며 다양한 문맥에서 상당한 수의 상세한 실례를 명시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영상도식을 통해 다의어의 의미 확장을 설명할 수 있다.

Lakoff(1987)는 “영상도식들 사이에 매우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으며 그

21)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2005 : 90) 참조

22) Lakoff(1987)는 영상도식은 우리 일상의 신체적 경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고 하였고 Johnson(1987)은 영상도식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지각적 상호작용과 운동계획의 동적인 패턴으로 그것은 우리의 경험에 응집성과 구조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며 임지룡(1997)은 영상도식의 일차적 근원은 사람의 몸이고 우리는 신체를 통하여 ‘부분-전체’, ‘중심-주변’, ‘연결-분리’, ‘안팎’, ‘균형’, ‘방향’ 을 지각하며 이 원초적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과 부정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김동환(2005 : 91), 임지룡(1997 : 3) 참조

관계가 다의성에 동기부여 한다.” 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영상도식을 바탕으로 물리적 영역이 추상적 영역으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일한 낱말의 여러 의미들이 서로 관련되는 이유는 그 의미들이 동일한 영상도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영상도식이 은유적으로 사상되기 때문이다.²³⁾ 영상도식에는 ‘경로’, ‘그릇’, ‘위-아래’, ‘부분-전체’, ‘중심-주변’ 도식 등이 있다.

2.3.2. 은유와 환유

인지 과정을 통해 획득된 원형의미는 비유법에 의해 더욱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유법에는 은유와 환유가 있다.

은유(metaphor)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영역의 개념을 다른 영역에 투사시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 근원영역(source domain)을 이용해서 목표영역(target domain)을 구조화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즉 목표영역은 인간이 인지하려고 하는 개념적 영역이고 이를 위해 사용하는 영역이 근원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은유란 인간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개념화한 근원영역으로부터 추상적이고 구조화 되지 않은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전력이다.

은유는 그 수행하는 인지적 기능에 따라 구조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적 은유로 분류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 구조적 은유와 존재론적 은유에 대해서만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는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식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추상적인 목표영역이 근원영역의 수준으로 구조화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개념적 구조를 통해 다른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인지역은 다르나 그 구조는

23) 김동환(2005 : 93-94)참조

24) 陈忠(2005 : 321) 참조

같다.

(1) 浪费时间。

시간을 낭비하다.

(2) 给我点时间。

나에게 시간 좀 주세요.

(3) 节省时间。

시간을 아끼다.

위의 예들은 ‘时间就是金钱(시간은 금이다)’ 라는 개념을 통해 추상적인 ‘시간’ 이 ‘소모, 낭비, 절약, 양도하는 물건’ 으로 이해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이 ‘유한한 자원, 가치 있는 물건’ 으로 그 개념이 구조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추상적인 근원영역인 시간이 자원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해 목표 영역으로 구조화 된 것이다.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에 의거하여 추상적 범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목표영역에 대하여 사물, 실제 그릇과 같은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爱情冷下来。

사랑이 식다.

(5) 你说的太多了，我们来不及消化。

너의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소화할 여유도 없다.

예(4)는 추상적인 사랑이 그릇이나 그릇 속에 담긴 액체로 이해된 것이고 예(5)는 추상적인 말을 소화되는 음식으로 이해한 것이다. 의인화 또한 존재

론적 은유에 해당된다.

(6) 收音机天天说个不停，令邻居十分讨厌。

라디오가 매일 말을 끊임없이 해서 이웃들이 매우 싫어한다.

(7) 落叶随着风高低起舞。

낙엽이 바람을 타고 아래위로 춤을 춘다.

예(6)의 ‘라디오’와 예(7)의 ‘낙엽’에 ‘사람’이라는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²⁵⁾

환유(metonymy)는 ‘인접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동일한 인지모형 내의 사상이다. 즉 두개의 상관된 인지영역 사이의 근접성과 관련성을 통해 현저성이 높은 인지영역으로부터 현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영역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²⁶⁾

(8) 两国首脑最近举行了会晤。

양국의 정상들이 최근 회의를 개최하였다.

(9) 她那哭的样子深深印在我的脑海里。

그녀의 우는 모습이 나의 머리에 깊게 새겨졌다.

예(8)은 사람에서 비교적 현저도가 높은 부분인 머리(腦)를 통해 높은 사람(首脑)을 지칭하였고 예(9)는 머리(腦)를 통해 머리의 부분인 두뇌(脑海)를 지칭하였다. 이처럼 환유란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가 또 하나의 실체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25) 임지룡(2008 : 173) 참조

26) 陈忠(2005 : 309) 참조

인지과정인 것이다.²⁷⁾

은유와 환유는 인간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범주를 이용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인지적 기제로 다의어는 은유와 환유 기제를 통해 의미를 전의하고 확장한다.

2.3.3. 문법화

문법화(grammaticalization)란 어휘적 내용과 형태를 가진 내용어가 문법 기능만을 가진 기능어로 동시에 변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어휘적 형태에서 문법적 형태로 덜 문법적 형태가 더 문법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언어 내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내용어에서 기능어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형태들이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문법범주의 어휘일지라도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상태에서 더욱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로의 변화 과정도 문법화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화라는 것은 어휘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의미의 추상화, 형태변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eine(1991)는 언어 내적인 문법화는 언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문법화 과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구체적 어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은유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지언어학자들 또한 문법화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의해서 기술되고 이해되는 인지과정이라 간주하였다. 이에 인지과정으로서의 문법화는 기초적인 인지과정이 그 기제로 작용하며 이러한 기제에는 은유와 환유 등이 있다.²⁸⁾ 이러한 은유적 의미추상 과정은 Heine가 제시한 의미 변화 추이와

27) 임지룡(2008 : 195) 참조

28) 문법화의 기제에는 은유 및 환유 외에도 유추, 재분석, 화용적 추론, 조화, 일반화 등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추상화와 관련된 은유와 환유만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도 일치한다.

사람 > 사물 > 활동 > 공간 > 시간 > 질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은유적²⁹⁾이고 이러한 개념들의 배열은 더 구체적인 왼쪽에서 보다 더 추상적인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단일 방향성을 띤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 즉 두 영역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두 개념의 의미적 중복이 일어나고 이때는 은유 이외의 다른 기제에 의해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유이다. 은유와 환유는 문법화의 작용 원리로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원형이론과 의미 확장 기제들을 분석의 전제로 하여 현대 중국어 동사 ‘有’가 어떠한 확장 기제를 통해 의미 확장을 이루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有’의 의미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有’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9) Heine(1991)는 이를 ‘범주적 은유(categorial metaphor)’라 부른다. Heine(1991: 48-49), 임지룡(2005 : 82)참조

Ⅲ. ‘有’의 사전적 의미 분석 및 구문 의미 분석

3.1. 사전별 의미 비교

우선 동사 ‘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다. 아래의 표는 주요사전 속 ‘有’에 대한 설명을 의미항목별로 정리 대조한 표이다.

<표1 - 의미항목별 비교표>

	现代汉语词典 ³⁰⁾	多义词词典 ³¹⁾	动词用法词典 ³²⁾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 ³³⁾
①	领有 我有《鲁迅全集》	具有 我有三种字典 他很有音乐天才	领有 他有两本外文小说 国情有了很大变化	领有, 具有 有两本书 国情有了很大变化
②	存在 屋里有十来个人	存在 树上有两只小鸟	存在 屋里有一棵树 有人找你干活儿	存在 桌上有本书 有人找你干活儿
③	估计或比较 水有一丈多深 他有他哥哥那么高了	性质, 数量 这块地估计有二十亩 这花开得有雪那么白	估计或比较 这条鱼有四斤 有他哥哥那么高了	估计或比较 水有一丈多深 她有他妈妈那么高了
④	发生或出现 他有了病 形势有了新发展	出现 他突然有了病 形势有了新发展	发生或出现 他有了病	发生或出现 学习有很大的进步 他肚子里有孩子了

⑤	多，大 有学问 有经验 有了年纪	事物的程度深 老师有学问		
⑥	泛指， 跟‘某’的作用 相近 有一天他来了 有人这么说，我可没 看见		泛指，跟‘某’ 的作用相近 有一天他没上课	
⑦	用在‘人， 时候， 地方’前面，表示 一部分 有人性子急，有人性 子慢 这里有时候也能热到 三十八九度	表示一部分 这部电影，有人 喜欢，有人不喜 欢		
⑧	用在某些动词的前 面组成套语，表示 客气 有劳有请			
⑨	<书>前缀，用在 某些朝代名称的前 面 有夏有周			
⑩		加：挂零 老人今年七十有 六岁了		

- 30) 吕叔湘,丁声树 编辑(1980),《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馆
31) 袁晖 主编(2001),《现代汉语多义词词典(修订版)》,书海出版社
32) 孟琮 等(1999),《汉语动词用法词典》,商务印书馆
33) 俞士汶 等(2003),《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清华大学出版社

제시한 4 종류의 사전들은 (《现代汉语词典》, 《动词用法词典》, 《多义词词典》,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 공통적으로 동사 ‘有’ 가 ① 소유 ② 존재 ③ 추측 또는 비교 ④ 발생 또는 출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분류하였다.³⁴⁾ 각각의 사전들이 제시한 예문들 또한 그 구조가 일치하고 ‘有’ 가 드러내는 의미와 기능도 일치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의미항(语义项)에서의 분류 및 나열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③번 ‘추측 또는 비교(估计或比较)’ 의 의미항에 대해 사전별로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예를 보자.

(10) 水有一丈多深。

물이 한 장 만큼 깊다.

(11) 这条鱼有四斤。

이 물고기는 4근 정도이다.

(12) 这块地估计有二十亩。

이 땅이 20묘 정도인 것을 추측하다.

(13) 他有他哥哥那么高了。

그는 그의 형만큼 크다.

(14) 这花开得有雪那么白。

이 꽃은 눈처럼 하얗게 피었다.

《现代汉语词典》,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에서는 예(10)과 예(13)속의

34) 《现代汉语词典》, 《动词用法词典》, 《多义词词典》,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이 네 종류의 사전을 비교한 것은 《现代汉语词典》은 가장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사전이므로 비교대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현대 중국어에서 ‘有’ 는 다의어 동사이므로 《多义词词典》과 《动词用法词典》을 채택하였으며 문법적인 정보를 위해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도 함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有’가 ‘추측 또는 비교(估计或比较)’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动词用法词典》에서도 예(11)과 예(13)의 ‘有’는 ‘추측 또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多义词词典》에서는 예(12), 예(14)의 ‘有’는 ‘성질, 수량(性质, 数量)’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10)의 ‘有’는 물(물의 깊이)이 목적어가 나타내는 ‘한 장(一丈)’이라는 수량만큼 이르렀다는 것을 추측하고 예(11)의 ‘有’ 또한 물고기가 ‘네 근(四斤)’ 정도라는 것을 추측한다. 예(12)의 ‘有’도 예(10), 예(11)과 마찬가지로 땅이 ‘20묘(二十亩)’ 정도 된다는 것을 추측한다. 《实用现代汉语语法》에서도 예(10)–예(12)와 같은 문형에서의 ‘有’는 ‘추측’을 나타낸다고 분류하였다.

예(13)의 ‘有’는 그의 키가 그의 형만큼 크다는 키의 성질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고 예(14)의 ‘有’ 또한 예(13)과 마찬가지로 꽃이 눈만큼 하얗다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实用现代汉语语法》에서도 예(14)와 같은 예문을 ‘비교’를 나타내는 ‘有’의 예로 제시하였다.

이로 보아 예(10)–예(14) 중의 ‘有’는 ‘성질,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 또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⑤번 ‘많다, 크다(多, 大)’의 의미항에 대해서도 사전마다 분류의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살펴보자.

(15) 老师有学问

선생님은 학문이 있다. (깊다)

(16) 有经验

경험이 있다. (풍부하다)

(17) 有了年纪

나이가 있다.(많다)

예(15)와 예(16)에서의 ‘有’에 대해 《现代汉语词典》에서는 ‘많다, 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多义词词典》에서는 예(17)의 ‘有’는 ‘사물의 정도의 심함’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动词用法词典》,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예(15)의 ‘학문(学问)’, 예(16)의 ‘경험(经验)’, 예(17)의 ‘나이(年纪)’ 등과 같은 명사는 일정 정도의 과정을 겪은 후 어느 정도 축적 되었을 때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다, 크다’라는 의미 유추가 가능하다. 이에 예(15)는 ‘학문이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 ‘학문이 깊다’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예(16)은 ‘경험이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예(17) 또한 ‘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吕叔湘, 丁声树(1999)는 ‘학문, 경험, 나이’ 등과 같은 일부 명사가 ‘有’와 결합하면 동사 ‘有’는 정도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도가 심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刘月华(2001)도 ‘有’와 일부명사가 결합하여 특수한 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의 ‘有’는 의미가 허화(虚化)되고 형용사적 성질을 가지며 ‘有...’은 적극적 형용사의 의미로 ‘多, 大, 远’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刘月华와 吕叔湘, 丁声树는 모두 예(15)-예(17) 중의 ‘有’를 ‘소유’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③번과 ⑤번 의미항에서 분류의 차이를 보이는 것 이외에도 일부 성분과 결합하여 형성된 ‘有’의 용례인 ⑥번 ‘범지(泛指)’과 ⑦번 ‘일부분(表示一部分)’의 의미항에 대해서도 분류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18) 有一天他来了。

어느 날 그가 왔다.

(19) 有一天他没上课。

어느 날 그가 수업에 오지 않았다.

(20) 有人这么说，我可没看见。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21) 有人找你干活儿。

어떤 이가 너보고 일하라고 했다.

《现代汉语词典》에서는 예(18)과 예(20)의 ‘有’는 ‘범지⑥’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动词用法词典》에서도 예(19) 중의 ‘有’를 ‘범지’의 의미항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예(20)과 의미, 구조가 같은 예(21)은 ②번의 의미항(존재)으로 분류하였다.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에서도 예(21)의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多义词词典》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예(18)-예(21)중의 ‘有’에 대하여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에서는 존재의 범주로 귀납하고 예(18)-예(21)과 같은 문형은 ‘有’앞에 처소사가 생략된 겹어구조로 ‘어떤(某)’, ‘어떤 것들(某些)’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动词用法词典》에서는 왜 예(19)는 ‘범지⑤’의 의미항으로 분류하고 예(19)와 의미와 구조가 일치하는 예(21)은 ‘존재②’의 의미항으로 분류하였는가? 예(19)-예(21)에서의 ‘有’는 ‘범지’의 의미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3.2절과 4장에서 논하겠다.

⑦번 의미항도 ⑥번 의미항과 같이 사전간의 분류의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예들을 보자.

(22) 有(的)人性子急, 有(的)人性子慢。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리다.

(23) 这里有(的)时候也能热到三十八九度。

여기는 어떤 때는 삼십 팔, 구도까지도 올라간다.

(24) 这部电影, 有人喜欢, 有人不喜欢。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现代汉语词典》에서는 예(22)와 예(23)의 ‘有’는 ‘일부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多义词词典》에서도 예(24)의 ‘有’를 ‘일부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动词用法词典》,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에서는 아래의 구문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예(22)-예(24)의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예(22)-예(24) 중의 ‘有’ 또한 ‘범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有’와 같이 ‘존재’의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⑧번과 ⑨번 의미항에 대해서는 《现代汉语词典》에서만 따로 분류 하였다. 일부 동사의 앞에 쓰여 존경과 겸양을 나타내는 ⑧의 용례는 실제 사용 빈도가 매우 적고 어떤 조대(朝代)명칭 앞에 붙이는 접두사인 ‘有⑨’ 또한 현대 중국어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기존의 어법서들에서 언급한 동사 ‘有’에 대한 의미 분류도 살펴 보았다. 吕叔湘의 《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有자문’을 ‘소유, 존재, 성질 수량의 도달’의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교학서적인 刘月华 등의 《实用现代汉语语法》에서는 ‘有자문’을 크게 ‘소유, 존재, 발생과 출현, 포괄, 도달’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丁声树的 《现代汉

《语语法讲话》에서는 ‘有자문’을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 존재를 표시하는 것, 나열을 표시하는 것, 양과 비교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张登歧의 《汉语语法问题论稿》에서는 ‘有人, 有时候, 有劳, 有请’ 등 일부 부가성을 지닌 용법들을 제외한 ‘有’의 상용의미를 ‘소유, 존재, 발생 또는 출현 세 종류로 귀납하였다. 그는 ‘추측 또는 비교’를 나타내는 ‘有’를 소유의 의미로 귀납하였는데 이는 ‘추측 또는 비교’의 의미는 문장에서 드러나는 의미로 ‘有’본연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对外汉语教学语法》에서는 ‘有’의 주요의미는 ‘소유와 존재’이고 어떤 상황의 ‘발생과 출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³⁵⁾ 기타 저서들의 ‘有’의 의미 구별도 위에 서술한 저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전상의 의미 항목별 비교와 저서들의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왜 사전마다 분류의 차이를 보였는가? 둘째, 왜 동일한 사전이나 저서에서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진 구문에 대해 분류의 차이를 보이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기존의 개별의미연구나 어휘현상 연구를 통해서만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필자는 의미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3.2. 사전적 의미의 분석

3.1장에서는 주요사전의 비교를 통해 동사 ‘有’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왔다. 3.2장에서는 3.1장에서 고찰한 사전상의 주요 의미들을 실제 코퍼스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³⁶⁾

35) 안진영 (2011: 36) 참조

36) 북경대 코퍼스 (CCL),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인 《语文》의 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필요시 《现代汉语八百词》, 《实用现代汉语语法》의 예문을 참조함

3.2.1. 소유

소유(領有或具有)란 ‘(토지, 자원 따위를) 영유하다, 소유하다’ 또는 ‘(추상적인 사물을) 가지다, 지니다’의 뜻이다. 아래에서 ‘소유’의 의미를 지닌 ‘有’에 대해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25) 我有一輛摩托車。

나는 오토바이 한 대를 갖고 있다.

(26) 我們不像你們當官的，個個都有錢。

우리는 너희 관료들과 달리 모두 돈이 있다.

(27) 今天怎麼有空出來啊？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돼서(있어서) 나왔니?

(28) 這個人很有前途。

이 사람은 전도유망하다.

(29) 人人都有兩隻手。

사람은 모두 두 개의 손이 있다.

(30) 牛馬有腳，鳥有翅膀。

소와 말은 다리가 있고 새는 날개가 있다.

예(25), 예(26)과 같이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오토바이’, ‘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有’는 예(27)처럼 ‘빈 틈, 짬(空)’과 같은 ‘추상적인 사물을 가지다’의 의미도 나타낸다. 예(28)의 ‘有’는 ‘앞길(前途)’과 같은 일부명사와의 결합을 통해 ‘많다, 크다, 심하다(多,

大,远)’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때 ‘有’ 와 목적어는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고 동사 ‘有’ 의 의미는 허화(虛化)되어 형용사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도부사 ‘很’ 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很 +(有前途)’ 와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³⁷⁾ 그러나 ‘有’ 자체는 ‘~가 있다(가지다)’ 라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예(29)의 ‘사람(人)’ 과 ‘손(手)’ 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예(30)의 ‘소(牛), 말(馬), 새(鳥)’ 와 ‘다리(脚), 날개(翅膀)’ 또한 종속관계를 나타낸다. 胡袁园(2005)은 NP1과 NP2가 나타내는 사물들의 관계 차이에 따라 소유와 종속을 개별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25), 예(26)과 같이 NP1과 NP2가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예(29), 예(30)과 같이 NP1과 NP2가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송병우(2004)는 소유를 분리가 가능한 소유와 분리가 불가능한 소유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종속’ 을 ‘분리 불가능한 소유’ 즉 소유의 종류로 본 것이다. 예(24)의 ‘손(手)’ 은 ‘사람(人)’ 의 신체일부이므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24)의 ‘다리(脚), 날개(翅膀)’ 또한 ‘소(牛), 말(馬), 새(鳥)’ 의 신체 일부이므로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체와 부분은 ‘소속, 포함’ 의 의미를 내포함으로 예(29)와 예(30)과 같은 문형의 ‘有’ 가 ‘소유’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2.2. 존재

존재(存在)란 ‘사물이나 사건이 특정한 시간,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아래 예문들 속의 ‘有’ 는 ‘존재’ 의 의미를 나타낸다.

37) 刘月华等 著, 《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 商务印书馆 (2001 : 693) 참조

(31) 屋里有人。

방 안에 사람이 있다.

(32) 湖里有十来枝荷花。

호수 안에 연꽃 10여 가지가 있다.

(33) 现在离上课还有一刻钟。

현재 수업시간까지는 아직 15분이 남았다.

(34) 晚上有月食，8点11分开始。

저녁에 월식이 있는데 8시 11분에 시작한다.

(35) 眼里有了泪花。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예(31), 예(32)의 ‘有’는 ‘방, 호수’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에 사물이나 사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33)의 ‘有’는 ‘현재(现在)’라는 특정한 시간에서의 존재를 나타내고 예(34)의 ‘有’ 또한 ‘저녁(晚上)’에 ‘월식(月食)’이라는 현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또한 예(35)의 ‘有’는 ‘눈 속(眼里)’처럼 추상적인 장소에서의 존재를 나타낸다.

때때로 ‘有’는 의미적으로 존재와 소유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자.

(36) 唐代有很多诗人。

당대에는 많은 시인이 있었다.

(37) 中国也有烤牛肉。

중국에도 불고기가 있다.

(38) 在一千只鸡蛋当中，沒有兩只形狀是完全相同的。

천 개의 계란 중에 완전히 같은 쌍의 계란은 없다.

(39) 睡衣上已經有好几个補丁了。

잠옷에는 이미 몇 군대 수선한 흔적이 있었다.

예 (36)은 ‘당나라에는 많은 시인들이 있다’ 와 ‘당나라가 많은 시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고 예(37)도 ‘중국에 불고기가 있다’ 라는 ‘존재’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중국이 불고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소유’ 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예(38)의 ‘계란 중에(鸡蛋當中)’ 나 예(39)의 ‘잠옷 위에(睡衣上)’ 처럼 사물명사와 방위사가 결합하여 장소사를 형성하는 경우 또한 ‘有’ 는 ‘소유’ 와 ‘존재’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儲澤祥 등(1997)은 만약 존재가 사물의 특수한 성질이라면 소유되어지는 사물 역시 존재성을 가지며 이에 ‘소유’ 는 ‘존재’ 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사물은 존재와 소유 이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朴起賢 (2004)은 ‘존재’ 는 ‘소유’ 의 다른 표현형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36)-예(39)의 ‘有’ 가 소유를 나타내는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통해 소유와 존재가 서로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 4장에서 이 두 의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겠다.

한편, 동사 ‘有’ 는 ‘사람(人)’ , ‘하루(一天)’ , 한번(一次)’ 등과 결합하여 ‘범지’ 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40) 有人这么说过。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41) 有一天他来得特别早。

어느 날 그는 특별히 일찍 왔다.

(42) 他有一次提到过这件事。

그는 한번은 그 일을 언급한 적 있다.

예(40)-예(42)의 ‘有’는 ‘사람(人), 하루(一天)’, ‘한 번(一次)’과 결합을 하여 ‘어떤’,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예(40)-예(42) 중의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现代汉语词典》와 《动词用法词典》에서는 예(40)

-예(42)중의 ‘有’는 ‘범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형 중의 ‘有’를 ‘존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가? ‘범지’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가? 제시한 사전간의 의미 분류 차이를 통해 ‘有’의 ‘존재’의 의미와 ‘범지’의 의미간에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有’는 ‘사람(人)’ ‘지방(地方)’ ‘때(時候)’의 앞에 쓰여 ‘일부분’을 표시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43) 有(的)人爱看京剧, 有(的)人爱看话剧。

어떤 사람은 경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연극을 좋아한다.

(44) 有的地方雨大, 有的地方雨小。

어느 지방은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지방은 비가 적게 온다.

(45) 有时候我很温和, 有时候我很暴躁。

나는 어떤 때는 온화하고 어떤 때는 쉽게 화를 낸다.

예(43)의 ‘有(的)人’은 ‘어떤 사람’ 즉 전체 무리 중의 일부를 가리키고 예(44)의 ‘有的地方’은 전체 지역 중 일부 지역을 나타낸다. 예(45)의 ‘有時候’ 또한 일정 기간 중의 어떤 시기를 가리킨다. 《现代汉语八百词》에 서는 예(43)-예(45)와 같은 문형의 ‘有’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두 개의 ‘有’가 연용(连用)되는 경우 ‘有’는 ‘일부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43)-예(45)와 같은 문형은 ‘~가 있고 ~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발생 혹은 출현

발생(发生) 혹은 출현(出现)이란 ‘원래 없던 현상이 생기다, 일어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46) 近年来，中小学教育也有了很大发展。

근래 들어 초·중등 교육도 많은 발전을 거두었다.

(47) 学习上有了明显的进步。

학업에 뚜렷한 진보(향상)가 있다.

(48) 国情有了很大的变化。

국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예(46)의 ‘有’는 ‘(발전)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예(47)의 ‘有’는 ‘(학업에 향상)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예(48)은 ‘(국정에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예(46)의 ‘발전(发展)’, 예(47)의 ‘진보(进步)’, 예(48)의 ‘변화(变化)’처럼 목적어가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동사 ‘有’의 의미에 변화가 일어난다.

《动词用法词典》에서는 예(48)을 ‘소유’의 의미로 분류하였고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에서도 예(48)에서의 ‘有’는 ‘소유’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47)과 같은 문형은 ‘출현 또는 발생’을 나타내는 ‘有’의 예로 제시하였다. 吕叔湘(1999)도 예(48)과 같은 문형 속의 ‘有’는 ‘소유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박기현(2005)도 ‘출현 또는 발생’은 ‘有’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동태조사 ‘了’나 본래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목적어 ‘발전(发展), 진보(进步)’ 등에서 드러나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예(46)–(48)의 ‘有’는 동태조사 ‘了’나 ‘출현 또는 발생’의 의미를 가진 목적어를 동반함으로써 ‘有’가 나타내던 ‘소유’의 의미가 허화된 것으로 보인다. 송경옥(2004)은 여기서의 ‘有’를 의미가 없는 형식동사로 보았고 《现代汉语语法信息词典》에서도 형식동사로 분류, 표기 하였다.³⁸⁾

3.2.4. 추측 또는 비교

추측(估计)이란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아래의 예들은 추측을 나타내는 ‘有자문’의 유형이다.

(49) 他大约有三十多岁。

그는 대략 30여 세이다.

(50) 肯尼亚的沙伏动物园有2万平方千米，是当今世界最大的天然动物园。

케냐의 차보동물원은 2만 제곱킬로미터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동물원이다.

38) 형식동사란 통사적으로는 중심동사지만 의미적으로 내용이 없는 표면 구조상의 동사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形式动词 이외에도 虚化动词, 虚义动词, 无色动词 등의 명칭으로 부른다.

예(49)의 ‘有’는 그가 서른 살 정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었고 예(50)의 ‘有’는 동물원의 크기가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라는 것을 추측한다. 즉 주어와 가리키는 사물에 대한 수량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추측한 것이다.

비교(比較)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이나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것으로 비교를 나타내는 ‘有’는 서로간의 유사점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를 보자.

(51) 弟弟没有妹妹那么爱学习。

남동생은 여동생만큼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52) 整个金库大约有半个足球场那么大。

전체 금고는 대략 축구장 반만큼 크다.

예(51)은 남동생은 여동생이 좋아하지 않는 만큼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여기서의 ‘有’는 두 사람의 좋아하지 않음의 정도를 비교한다. 예(52)는 금고의 크기를 축구장의 크기에 비교하였다. 즉 주어와 주어가 가리키는 사물의 성질을 비교한 것으로 여기서의 ‘有’는 ‘~만큼 되다, ~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비교를 나타내는 ‘有’의 품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汉语动词用法词典》(1999), 《现代汉语八百词》(1999), 《实用现代汉语语法》(2001), 《现代汉语词典》(2005)에서는 모두 이러한 ‘有’를 동사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林泰安(1986)은 ‘弟弟有哥哥高’의 ‘有’를 개사로 보고 ‘有’는 여기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며 개사 ‘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宋玉柱(1987)도 ‘소유’와 ‘존재’를 나타내는 ‘有’는 동사이지만 ‘비교’를 나타내는 ‘有’는 개사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有’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有’에서 허화된 것이나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曹炜(1987)도 개사 ‘比’는 단독 운용할 수 없지만 비교를 나타내는 ‘有’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장에서 제시한 사전들과 언급한 저서들은 대부분 ‘추측’과 ‘비교’를 하나의 의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로 보아 ‘추측’과 ‘비교’ 사이에는 의미적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사 ‘有’는 ‘소유’, ‘존재’, ‘발생 또는 출현’, ‘추측’, ‘비교’, ‘범지’, ‘일부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논의 하겠다.

3.3. ‘有’ 구문의 의미 분석

현대 중국어 동사 ‘有’는 의미가 다양하고 용법도 특수할 뿐 아니라 그 구조 또한 매우 다양하다. 동사 ‘有’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항동사(二价动词)로 두 개의 동원(动元) 즉 기사(起事), 지사(止事)와 관련되어 있다.³⁹⁾ 이에 ‘有’가 나타내는 의미는 두 동원의 관계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 박기현(2005)은 ‘有’의 의미는 논항(동원)과의 결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有’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전에 결합하지 않던 성분과 결합하게 되었거나 혹은 그 결합관계에 변화가 생겨 다양한 결합관계가 나타나기 때문

39) 동핵구조(动核结构)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구조로 동작행위를 핵심구조로 삼는다. 동핵구조(动核结构)에서 동작, 행위, 변화, 상황, 관계 등을 핵심으로 삼는 의미성분을 ‘동핵(动核)’이라고 하며 이는 동핵구조(动核结构)의 핵심이다. 이 동핵(动核)과 관련된 의미성분이 바로 ‘동원(动元)’이다. 동원(动元)은 동핵의 내부성분으로 긴밀하게 동핵에 의존하며 주요 동원(动元)으로는 主事, 客事, 与事가 있다.

‘有’作为动核联系着两个动元:起事(关系或分类的起方)和止事(关系或分类的止方)。范晓著 金南미 외역, 《三个平面的语法观》, 차이나하우스 (2007: 193) 참조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有’의 다양한 구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문 속에 드러나는 ‘有’의 다양한 의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张豫峰(1999)은 전형적인 ‘有자문’을 크게 ‘有’ 앞의 주어부분, 술어 중심어인 ‘有’ (‘有’에 첨가된 부사어, 동사와 결합된 ‘有’도 포함), ‘有’ 뒤의 목적어부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시하고 편의상 주어부분을 A, 목적어부분을 B로 표기하였다. 본 장에서도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표기방법을 사용하겠다.

3.3.1. NP1 + 有 + NP2

‘有자문’의 전형적인 구조는 ‘A + 有 + B’로 A와 B에 출현하는 성분에 따라 A와 B의 관계가 달라지고 문형 속 동사 ‘有’가 나타내는 의미도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53) 阿里有一台计算机。

阿里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있다.

(54) 猫有四条腿。

고양이는 다리가 네 개 있다.

예 (53)처럼 A에 ‘阿里’와 같은 사람 혹은 생명을 나타내는 NP 성분이 오고 B에 사물명사가 오는 경우 동사 ‘有’는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문형은 ‘了, 过’를 동반할 수 있고 부정형에는 ‘没有, 没’를 사용한다. 예(54)는 A에 ‘고양이(猫)’라는 [+생명]의 의미자질을 가진 NP 성분이 출현하였고 B에는 고양이의 신체 일부인 ‘다리(腿)’라는 NP 성분이 출현하였다. 이때의 ‘有’는 전체와 부분의 관

계를 나타내고 ‘~을 가지고 있다’ 라는 ‘소유’ 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때의 ‘有’ 와 B 사이에 수량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예 (53), 예(54)와 같이 A에 [+생명]의 의미자질을 가진 구체적인 명사가 오고 B에 구체적인 사물명사가 오는 경우 ‘有’ 는 ‘소유’ 의 의미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A와 B에 추상명사가 오는 경우에도 ‘有’ 는 ‘소유’ 의 의미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55) 即便真是‘爱’，也一定有更深，更远的含义。

진실한 ‘사랑’ 이라도 반드시 더 깊은 함의가 있다.

(56) 他的作品对年轻人有很大的影响。

그의 작품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이 있다.(영향을 미친다)

(57) 教书这个工作很有意义。

가르치는 일은 매우 보람이 있다.

예(55)의 A에는 ‘사랑(爱)’ 이라는 추상명사가 등장하였고 B 또한 ‘함의(含义)’ 라는 추상명사가 등장하였다. 예(55)처럼 A와 B에 추상명사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有’ 는 ‘소유’ 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56)의 B는 추상명사로 이러한 명사로는 ‘방법(办法), 생각(想法), 계획(计划), 수준(水平)’ 등이 있고 이외에도 ‘연구하다(研究), 개발하다(启发), 안배하다(安排)’ 등의 명동사(名动词)도 올 수 있다.⁴⁰⁾ 예(56)과 같이 B에 추상명사가 오는 경우 또한 ‘有’ 는 ‘소유’ 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의 ‘有’ 는 일부

40) 朱德熙(1982)는 ‘有’ 뒤에는 쌍음절 동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어 이를 ‘명동사(名动词)’, ‘명형용사(名形容词)’ 라 명명했다. 黎锦熙, 刘世儒(1957)도 ‘有’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처럼 쓰이거나 이미 명사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胡裕树, 范晓(1995)는 ‘有’ 뒤에 오는 동사는 단어의 성질(词性)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의미상 동사 ‘有’ 와 관련된 의미성분이며 동사 ‘有’ 는 비명사성 목적어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동사로 보기 보다는 명사화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사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고정어구(固定短语)를 이루고 B는 형용사 등 한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형은 대부분 긍정적인 색채를 띤다.⁴¹⁾ 예(57)의 B 또한 추상명사로 이때의 동사 ‘有’는 B와 결합하여 ‘有+B’ 구조를 형성하고 이 구조는 형용사적 성질을 가진다. 이에 정도부사 ‘很, 挺, 最, 非常’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57)의 ‘의의(意义)’와 같은 명사로는 ‘나이(年纪), 학문(学问), 경험(经验), 재능(才能), 기풍(气派)’ 등이 있다.⁴²⁾ 그러나 ‘有’ 자체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때때로 B에 수량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我有两下子。나는 꽤 재간이 있다’ 처럼 고정격식(固定搭配)에 속한다. 여기서의 ‘有’도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A에 장소사, 시간사, 시간과 장소의 혼합사인 NP 성분이 등장하고 B에 사람 혹은 사물을 나타내는 NP 성분이 오는 경우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래의 예를 보자.

(58) 仙岩有三个瀑布。

신선바위에는 세 개의 폭포가 있다.

(59) 明天有风雪, 天气预报广播了。

내일 눈보라가 있을 것이라고 일기예보에서 방송했다.

41) 어휘는 기본적인 개념의미 이외에 부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부가적 의미를 색채의미(色彩义)라고 한다. 이러한 색채의미의 종류로는 감정색채, 어체색채, 형상색채, 문화색채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색채는 감정색채에 속하며 감정색채란 객관적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와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감정색채는 주로 ‘褒贬’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어휘는 ‘褒义词’,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贬义词’라고 한다. 전용진, 김석영(2005 : 130) 참조

42) 吕叔湘(1999 : 630), 陆庆和(2006 : 407) 참조

(60) 张显波心里有一种丰收的喜悦。

张显波는 맘속에 일종의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

(61) 有水了! 有水了!

물이다! 물!

예(58)처럼 A위치에 ‘신선바위(仙岩)’ 라는 장소사가 오고 B에 ‘폭포(瀑布)’ 라는 일반명사가 오는 경우 ‘有’ 는 ‘존재’ 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59)의 ‘내일(明天)’ 과 같이 A에 시간사가 오고 B에 ‘눈보라(风雪)’ 라는 일반명사가 오는 경우 또한 ‘有’ 는 ‘~에 ~가 있다’ 라는 ‘존재’ 를 나타낸다. 예(60)과 같이 A에 ‘마음 속(心里)’ 과 같은 추상적 장소사가 오는 경우에도 ‘有’ 는 ‘존재’ 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61)처럼 A 부분이 생략된 경우 ‘有’ 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사물의 존재를 나타낸다. 일정한 담화 맥락에서 ‘有’ 의 주어(A)는 생략이 가능하다. 때때로 주어를 말할 수 없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러한 문형을 사용한다. 존재물은 ‘有’ 의 뒤에 나타나나 때때로 ‘有’ 의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A + 有 + B’ 문형은 A와 B에 등장하는 성분 에 따라 ‘有’ 가 나타내는 의미에 차이가 있었다. NP1이 사람 혹은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이면 ‘소유’ 의 의미가 강하고 NP1이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면 ‘존재’ 의 의미가 강하다.

‘소유자 + 有 + 소유물’ 이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문형과 ‘존재공간 + 有 + 존재물’ 이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문형은 모두 ‘NP1 + 有 + NP2’ 의 구조로 A와 B에 구체적인 명사나 추상적인 명사가 출현한다. 장호득(2006)은 존재를 나타내는 ‘有자문’ 은 ‘소유자 + 有 + 소유물’ 라는 소유의 기본구조에 ‘존재’ 를 추가한 구조로 이에 ‘有’ 가 나타내는 ‘존재’

는 ‘소유’에 포함되는 개념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⁴³⁾ 이로 보아 ‘소유’와 ‘존재’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2. NP1 + 有 + NP2 + X⁴⁴⁾

동사 ‘有’는 먼저 B에 출현하는 명사와 동목적(動賓)구조를 이룬 후 다시 B 뒤에 출현하는 동사나 동사구와 결합하여 연동구조를 이룬다.

(62) 我有一件事跟你商量。

나는 너와 상의할 일이 있다.

(63) 现在果然有路可走吗?

지금 과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예(62)의 주어(A)는 [+생명]을 가진 일반명사이고 B는 사물명사이며 X는 동사구로 여기서의 ‘有’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63)의 A에는 ‘지금’이라는 시간사가 등장하였고 ‘有’는 ‘길(路)’과 동목적구조를 이룬 다음 다시 동사 ‘가다(走)’와 결합하여 연동구조를 이루었다. 이때의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62), 예(63)과 같은 문형은 ‘A + 有 + B + V/小句’로 대체로 ‘A + 有 + V/小句 + 的 + B’의 구조와 같다.

또한, ‘有 + B’가 겹어구조의 앞부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3) 장호득 (2006 : 8-10) 참조

44) 有자문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는 ‘NP1 + 有 + NP2’이며 이러한 구조의 뒷부분은 有자문의 후속 성분으로 X라고 표기한다. 张豫峰(1999 : 2) 참조

(64) 他有个女儿叫小芹。

그에게는 小芹이라는 딸이 있다.

(65) 屋里有人说话。

방에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예(64)는 주어(A)가 [+생명]을 가진 일반명사이고 술어가 겹어구인 경우로 ‘그(他)’에게 ‘딸(女儿)’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어서 그 딸의 이름이 ‘小芹’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 때의 동사 ‘有’ 자체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B는 대부분 명사나 명사구로 대체로 뒤에 오는 동사의 수사(受事)와 비슷하다.⁴⁵⁾ 예(65)는 A에 장소가 오고 술어가 겹어구인 경우로 이때의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상에서 보이듯 ‘NP1 + 有 + NP2’ 구조는 X성분과 결합하여도 동사 ‘有’의 의미는 A와 B에 출현하는 성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3. NP1 + 有 + VP

B에 ‘출현이나 발생’을 나타내는 이음절 동사가 출현하는 경우 ‘有자문’은 ‘생기다, 일어나다’의 의미를 드러낸다.

(66) 人民生活水平有了很大提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45) 수사(受事)란 동작의 대상 즉 동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他在看电视。 그는 텔레비전을 본다’에서 ‘电视’가 동작의 대상 즉 수사이다.

(67) 去年国民收入又有了增长。

작년 국민 소득이 또 증가하였다.

(68) 教育观念, 教育思想要有一个根本的转变。

교육 관념과 사상은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69) 在他逝世后的近20年中已有了历史性的进步和发展。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근 20년 동안 역사적 진보와 발전이 있었다.

예(66)의 ‘향상(提高)’, 예(67)의 ‘증가(增长)’, 예(68)의 ‘전환(转变)’, 예(69)의 ‘진보(进步), 발전(发展)’ 등 ‘有’의 목적어로 [+출현] 또는 [+발생]의 의미자질을 가진 이음절 동사가 오는 경우 ‘有자문’은 ‘생기다, 일어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생기다, 일어나다’의 의미는 변화를 나타내는 조사 ‘了’나 목적어가 담당한다. 이에 동사 ‘有’의 ‘~가 있다’라는 실제적 의미가 허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에 용언성의 동사 혹은 동사구가 오면 ‘有’의 실제적 의미가 허화되어 형식동사로 사용된다.

(70) 华佗对妇产科也很有研究。

华佗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71) 我们在上一节中已有分析。

우리는 이미 위의 절에서 분석을 하였다.

(72) 金先生心中大致的有了这么个决定。

김 선생님은 심중에 대략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73) 有调查显示,在未来几个月中,美国的消费开支有可能下降。

조사에 의하면 몇 개월 안에 미국의 소비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B에 예(70)의 ‘연구하다(研究)’, 예(71)의 ‘분석하다(分析)’, 예(72)의 ‘결정하다(決定)’, 예(73)의 ‘하락하다(下降)’와 같은 이음절 동사가 오는 경우 ‘有’는 기존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써의 역할이 아닌 문장에서 무의미한 기능어적 어휘로 변화한다. 예(70)–예(73)의 ‘有’는 통사적으로 중심동사이지만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목적어가 담당한다. 즉 ‘有’는 표면 구조상의 동사로 형식동사이다. 朱德熙(1987)와 陈宁萍(1987)는 ‘有’가 동사 목적어를 취하면 원래의 술어 중심 동사를 목적어로 강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형식동사의 역할과 흡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의 동사 ‘有’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에 ‘有’를 생략하더라도 의미 전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朱德熙(1982)는 이러한 문형의 ‘有’ 뒤에 올 수 있는 동사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다.

3.3.4. NP1 + 有 + NC or NP2 + Adj⁴⁶⁾

A위치에 대부분 NP성분이 오고 B에 수량사나 수량어구가 오는 경우 ‘有’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문형의 B 뒤에는 종종 형용사를 동반한다.

46) 수량사나 수량어구는 NC로 표기하며 형용사는 Adj로 표기한다.

(74) 那条河有五百米。

저 강은 500미터 정도 된다.

(75) 霍尔木兹海峡虽然只有150千米长，却是石油运输最繁忙的海峡。

호르무즈해협은 150킬로미터 정도이지만 석유 운송이
가장 활발한 해협이다.

예(74)의 A에는 ‘강(河)’이라는 명사성분이 출현하였고 B에는 ‘500미터(五百米)’라는 수량어구가 출현하였다. 이 경우 동사 ‘有’는 ‘강이 500미터 정도 된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75)처럼 ‘有’가 수량사와 형용사를 수반하여 동목적(动宾)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길다(长)’ 즉 형용사는 추측대상의 성질을 나타내고 ‘有’는 ‘해협이 150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대상의 성질을 추측한다. 이러한 문형에는 ‘厚, 长, 深, 高, 宽’ 등의 형용사가 자주 사용된다.

또한, 형용사를 동반하는 구조인 ‘A+有+B+形’에서 B에 비교의 객체를 나타내는 일반명사가 출현하고 ‘这么, 那么’를 동반하면 동사 ‘有’는 ‘비교’의 기능을 나타낸다.

(76) 那个教室没有这个教室这么大。

저 교실은 이 교실만큼 크지 않다.

(77) Militare Ordine di Malta 这个国家只有一个足球场那么大。

몰타 기사단의 자치 및 군사 수도회 이 국가는 단지
축구장만 하다.

(78) 我的小女儿有桌子高了。

나의 어린 딸은 탁자(높이)만큼 자랐다.

예(76)–예(78)의 A와 B에는 주로 일반명사가 출현한다. 여기서의 A는 비교주체를 나타내고 B는 비교객체를 나타내며 형용사는 비교의 내용을 나타낸다. 이때의 동사 ‘有’는 ‘~만큼 이다’라는 ‘비교’의 의미를 드러낸다. 예(76)–예(78)과 같은 문형은 의미적으로 ‘A+跟+B+一样+(Adj)’ 구조와 비슷하다. ‘有’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성질과 상태를 강조한다. ‘有자문’이 나타내는 비교는 일종의 동등비교(平比)의 성질이다.

3.3.5. 소결

다양한 ‘有자문’ 분석을 통해 살펴 본 ‘有’의 의미 유형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 문	예 문	의미
NP1 + 有 + NP2 NP1 + 有 + (NC) NP2	阿里有一台计算机。 他的作品对年轻人有很大的影响。	소유
	仙岩有三个瀑布。 明天有风雪。 张显波心里有一种丰收的喜悦。	존재
NP1 + 很 + (有 + NP2)	教书这个工作很有意义。	소유

有 +NP2 NP2 +有	有水了! 老虎有吗?	존재
NP1 + 有 + NP2 +X	我有一件事跟你商量。 他有个女儿叫小芹。	소유
	现在果然有路可走吗? 屋里有人说话。	존재
NP1 + 有 + VP NP1 + 有(了) + VP NP1 + (很)有 + VP	去年国民收入又有了增长。 华佗对妇产科也很有研究。	형식동사
NP1 + 有 + NC NP1 + 有 + NC + Adj	那条河有五百米。 霍尔木兹海峡只有150千米长。	추측
NP1 + 有 + NP2 + [这么, 那么] +Adj	那个教室没有这个教室这么大。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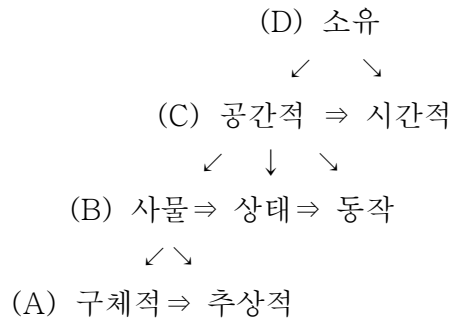
<표 2>

<표 2>에서 보이듯 ‘有’는 일반명사,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 수량사 등 다양한 성분과의 결합관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형 분석을 통해 같은 구조를 가진 문형이라도 그 논항성분변화에 따라 ‘有’가 나타내는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미 사이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IV. ‘有’의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현대 중국어에서 ‘有’는 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로 그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띄며 하나의 큰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有’의 다양한 의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기현(2005)은 다의어의 의미구조 분석틀로 Langaker의 의미망 모형을 소개하고 이 모형에 기초해 중국어 동사 ‘有’의 의미망을 그리고 그 의미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 2 - 박기현 의미망>47)

<그림 2>에서 보이듯 박기현은 동사 ‘有’가 ‘소유’의 의미에서 시작하여 수평으로의 확장과 수직으로의 도식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의미망으로 그려내었다. 그러나 <그림 2>는 공시적 관점에서 ‘有’의 확

47) 박기현 (2005 : 12) 참조

장 의미들이 최고도식인 ‘소유’에 이르는 의미관계만을 기술하였을 뿐 그 의미관계의 형성에 어떠한 기제들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有’의 의미관계를 기술하고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전의될 때 어떠한 의미 확장 기제들이 작용하였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4.1. ‘有’의 원형의미

‘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다’, ‘소유하다’의 뜻이다. 대체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쓰인 의미가 사전상의 첫 번째 의미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사전 및 저서들은 소유(領有, 具有)를 ‘有’의 첫 번째 의미항으로 분류, 제시하였다.⁴⁸⁾

伍文英(2003)은 문자학적 측면에서 ‘有’는 손의 형상인 ‘又’와 ‘肉’로 형성된 문자로 이것은 손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니 소유나 점유를 상징한다고 하였다.⁴⁹⁾ 许慎《说文解字》에서는 “‘有’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된다(不宜有也)’는 뜻이다. 춘추전(春秋傳)에서 이르길 ‘해가 달에게 먹히는 때가 있다(日月有食之)’라고 하였다. 月로 구성되어 있고 又是 소리요소이다.”라고 하였다.⁵⁰⁾ 청나라의 段玉裁가 설문해자를 해설한 《설문해자주(注)》에서는 “유(有)는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있는 경우’를 뜻하며 그 의미가 인신(引伸)되어 ‘모든 있는 것’을 ‘有’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朱霞(2002)도 모든 소속 즉 소유자가 있는 것은 ‘有’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48) 박중환(1998)은 사전상의 첫 번째 의미를 원형의미로 삼았다. 왜냐하면 대체로 한 단어의 여러 의미 중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쓰인 의미가 사전상의 첫 번째 의미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49) 부수자 月은 고기 肉자가 도안(圖案)과정에서 보다 간단한 모양으로 변한 것이다.

50) 《说文解字·有部》：“有，不宜有也《春秋传》曰：‘日月有食之’从月又声”。朱霞(2002：1) 참조

이로 보아 ‘有’의 다양한 의미들 중 ‘소유’의 의미가 가장 일찍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들은 ‘有’의 원형의미를 잘 보여준다.

(79) 我有《鲁迅全集》。

나는 《노신전집》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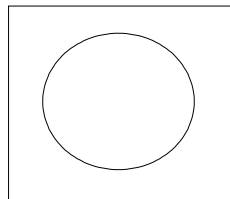
(80) 我也有这种圆珠笔。

나도 이러한 볼펜을 가지고 있다.

(81) 阿眉过去有个朋友。

阿眉는 옛날에 친구가 있었다.

예(79)의 ‘有’는 ‘나(我)’라는 [+생명]의 의미자질을 가진 소유자가 ‘《노신전집》’이라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80)의 ‘有’ 또한 ‘나’라는 생명체가 ‘볼펜’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81)은 소유자인 ‘阿眉’가 소유물인 ‘친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로 보아 소유를 나타내는 ‘有’는 일반적으로 [+생명]의 의미자질을 가진 소유자가 구체적인 소유물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유자가 인간일 경우 동사 ‘有’는 가장 자연스러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有’의 원형 의미는 <그림 3>과 같은 인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그림 3> 에서 사각형은 공간영역을 원형은 대상영역을 나타낸다. 이 공간과 대상이 소유자와 소유대상의 관계를 형성하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소유자가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소유 역시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인간을 의미를 이해하고 발신하는 주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이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의미가 ‘有’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원형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원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有’는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다.

4.2. 영역의 전환에 의한 의미 확장

인지적으로 공간영역은 은유나 환유적 기체에 의해 다른 의미영역으로 확장 가능하다. 장소나 시간이 소유 공간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경우 동사 ‘有’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자.

(82) 屋里有十来个人。

방 안에 10여 명의 사람이 있다.

(83) 百货大楼有这种尼龙伞。

백화점에는 이러한 나일론 우산이 있다.

(84) 水下有待机而动的潜艇。

수면 아래에는 출격 대기 중인 잠수함이 있다.

예(82)-예(84)의 소유공간은 모두 구체적인 장소이다. 소유자를 소유물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有’를 ‘존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유는 [+생명]의 의미자질을 가진 사물만이 가능하나 은유적

기체인 의인화를 통해 무생물인 장소나 시간에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소유물을 소유할 수 없는 장소나 시간이 소유물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82)의 ‘방(屋)’, 예(83)의 ‘백화점(百货大楼)’ 예(84)의 ‘물(水)’은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소유자가 되고 이에 ‘장소가 ~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 ~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예(82)는 ‘방이 10여 명의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 ‘방에 10여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예(83)는 ‘백화점이 우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통해 ‘백화점에 우산이 있다’라는 의미로 전환이 가능하며 예(84) 역시 ‘~가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를 통해 ‘수면 아래 잠수함이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공간영역은 은유, 환유의 기제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영역에서 추상적인 장소영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들을 보자.

(85) 两年过去了，她手里有了一万元的积蓄。

2년이 지나고 그녀의 수중에는 저축예금 1만원이 있었다.

(86) 只要我们心里有人民，人民就会信任和支持我们。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인민이 있다면 인민도 우리를
신임하고 지지할 것이다.

예(85)와 예(86)은 모두 ‘~에 ~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장소에서의 존재를 나타낸다. 예(85)의 ‘손(手)’이나 예(86)의 ‘마음(心)’을 은유적으로 구조화하여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공간성을 매개로 물리적 공간영역이 추상적인 공간영역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동사

‘有’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간영역은 확장 기제를 통해 시간 범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공간영역이 장소에서 시간으로 확장된 경우가 아래의 예이다.

(87) 唐代有个诗人，名叫贾岛。

당대에 가도라는 시인이 있었다.

(88) 明天还有明天的事。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다.

(89) 人们绝不会忘记，20世纪90年代，有这样一位共产党员。

사람들은 20세기 90년대에 이러한 공산당원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87)의 ‘당대(唐代)’，예(88)의 ‘내일(明天)’，예(89)의 ‘20세기 90년대(20世纪90年代)’는 모두 시간사로 여기서의 ‘有’는 ‘~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시간영역도 소유대상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맥락으로 장소영역이 시간의 영역으로 전환된다. 시간영역도 소유공간으로 본다면 장소영역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시간에 ~가 있다’라는 의미 유추가 가능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은 구체적인 장소 즉 구체적인 개념영역을 추상적인 장소나 시간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영역으로 은유적으로 구조화한다. 공간영역이 장소사 즉 구체적인 공간을 나타낼 경우 ‘有’는 소재적 의미를 나타내고 공간이 확장되어 시간이 공간적으로 이해되는 경우 ‘有’는 존재적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

앞에서 소유공간의 전환으로 인한 의미 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유공간

의 전환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모두 구체적인 소유대상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소유대상도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

(90) 这条河有三丈多宽，水流很急。

이 강은 3장 정도로 넓고 물살이 세다.

(91) 拥有1300多万人口的北京,现在的地铁仅有75公里。

1300여만 명을 수용하는 북경의 현재 지하철은
약 75km이다.

예(90)의 ‘3장(三丈)’ 과 예(91)의 ‘75km(75公里)’ 는 사물의 성질을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물의 속성 또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소유물로 인식할 수 있다면 ‘有’ 는 ‘(상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소유’ 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수량으로 표현된 사물의 상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양(성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정지을 수 없는 모호성을 띄고 있다. 이에 동사 ‘有’ 는 ‘~정도 있다’ , ‘~만 하다’ 라는 ‘추측’ 의 의미를 나타낸다.

4.3. 문법화에 의한 의미 확장

중국어의 어휘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내용어와 문장 속에서 별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을 하는 기능어로 나뉜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는 문장 내에서 통사상 위치의 변화나 다른 어휘와의 조합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허화된다. 이와 같이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에서 별 의미 없

는 기능어로 바뀌는 변화를 ‘문법화’ 라고 한다.⁵¹⁾ ‘有’ 또한 문법화를 통해 ‘소유’ 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허화되고 기능적 측면이 강화되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허화현상을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의해서 기술되고 이해되는 인지과정이라고 간주한다.⁵²⁾ 따라서 ‘有’ 의 의미허화과정을 ‘은유와 환유’, ‘재분석’, ‘일반화’ 등과 같은 인지적 기제를 통해 고찰해 보겠다.⁵³⁾

동사 ‘有’ 는 일부 성분과의 결합을 통해 그 실제적 의미에 변화가 일어났다. 아래의 예를 보자.

(92) 有人把青蛙养在笼里。

어떤 이는 청개구리를 바구니에 키웠다.

(93) 有一天下雨。

어느 날 비가 왔다.

(94) 大家坐在草地上，有的下棋，有的打扑克。

모두가 잔디밭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장기를 두고
어떤 사람은 카드놀이를 한다.

예(92)의 ‘有’ 는 ‘사람(人)’ 과 결합하여 ‘어떤 이’ 라는 ‘범지’ 의 의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예(93)의 ‘有’ 또한 ‘하루(一天)’ 와의 결합을 통해 그 의미에 변화가 발생하여 ‘범지’ 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吕叔湘《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예(92)과 예(93) 중의 ‘有’ 는 ‘존

51) 김현희(2006 : 35) 참조

52) 김동환(2005 : 215), 김현희(2005 : 47) 참조

53) 김현희(2005)는 문법화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과 구체적인 방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인간의 인지 심리적 측면에서 그 기제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제에는 ‘은유, 환유’, ‘재건’, ‘강화’, ‘일반화’, ‘재분석’ 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인지적 기제 중 ‘은유’, ‘일반화’, ‘재분석’ 을 사용하여 동사 ‘有’ 의 의미 허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이와 같은 문형은 겹어구조라 하였다. 그러나 예(92), 예(93)과 같은 문형 중의 ‘有’는 ‘사람(人), 하루(一天)’ 등의 일부 성분과의 결합으로 인해 그 실제적 의미가 허화되어 ‘어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무정(无定)의 표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예(94)의 ‘有’는 ‘사람(人)’의 앞에 쓰이고 문장에서 연속으로 출현하여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라는 ‘일부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동사 ‘有’가 ‘사람(人), 지방(地方), 때(时候)’와 같은 성분과 결합하고 문장 중 연속으로 출현하는 경우 그 의미에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술어성 성분 뒤에 조사 ‘的’를 동반하여 的자 구조를 형성할 경우 술어성 성분의 문법기능에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로 보아 여기서의 ‘有’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일부 성분과의 결합을 통해 그 실제적 의미가 허화되고 ‘일부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有’는 동사 목적어와 결합하여 그 실제적 의미가 허화된 경우도 있다.

(95) 他马上有了新的决定。

그는 바로 새로운 결정을 하였다.

(96) 公司的经营情况已有改善。

회사의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95)와 예(96)의 문형이 나타내는 의미는 ‘有’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인 ‘~가 있다(가지다)’가 아니라 목적어인 ‘결정하다(决定)’, ‘개선하다(改善)’가 담당하고 있다. 云汉, 峻峡(1991)은 ‘有’가 동사 목적어를

가지면 의미면에서 뚜렷한 허화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소유, 존재’의 의미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송경옥(2003)도 이러한 문형 속의 ‘有’는 통사적으로 중심동사이지만 의미적으로 내용이 없는 표면상의 동사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예(95)와 (96)의 ‘有’는 ‘소유나 존재’의 의미가 허화되어 문장에서 거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형식동사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형의 ‘有’는 상태의 소유라는 ‘추측’의 의미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⁵⁴⁾

(97) 这台耕耘机有十几米宽，像个大耙子。

이 경운기는 넓이가 10여 미터 정도로 마치 큰 갈퀴 같다.

(98) 伊拉克的国土面积有两个英国那么大。

이라크의 국토 면적은 영국 두 배만큼 크다.

추측을 나타내는 ‘有자문’의 구조는 예(97)과 같이 ‘A+有+B(数量)+形’로 여기서의 형용사는 B의 수식을 받는다. 여기서의 수량어구가 예(98)의 ‘영국(英国)’과 같은 객관적인 사물로 치환된다면 ‘A+有+B+(这么, 那么)+形’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동사 ‘有’가 나타내는 의미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A+有+[B(数量)+形] → A+[有+B]+(这么, 那么)+形

54) 재분석(reanalysis)이란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태의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 언어 구조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문법화의 기제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a, b) c’의 형태로 인식하던 언어 구조에 대하여 인지적 관점의 변화에 따라 ‘a (b, c)’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a, b’와 ‘c’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가 소실되고 ‘a’와 ‘b, c’를 분리하는 새로운 경계가 등장하게 되어 문장구조에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의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상화(1998 : 240), 김현희(2005 : 53) 참조

위와 같은 재분석 과정을 통해 ‘有’의 의미는 허화되고 동사성도 점차 약화된다. 또한, ‘有+B’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개사와 비슷한 비교기능을 가지게 된다.

‘有’의 의미허화는 소유의 의미를 빌어 ‘있다(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었고 ‘추측’의 의미로 허화되었으며 또한 문장에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형식적 어휘로 의미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은유적 기제를 통해 발생하였다. 즉 구체적인 소유공간이 은유의 방법을 통해 장소, 시간, 상태, 상황 등의 추상적인 영역으로 전의된 것이다. 이처럼 ‘有’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변하는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⁵⁵⁾

4.4. 의미 확장 방식의 시대별 고찰

4.4장에서는 4.2장과 4.3장에서 살펴본 ‘有’의 의미 확장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장의미로 전환할 때 작용한 인지적 기제들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先秦), 양한(兩漢) 시기에는 아래와 같은 ‘有’의 용례가 출현하였다.

(99) 有殷受天命惟有历年。(尚书·召诰) 56)

은나라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 여러 해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55) 일반화 현상은 언어 사용의 경제성 추구 원리에 의해 일어난다. 즉 동일한 형식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휘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56) 王力, 《汉语史稿》, 中华书局 (2004 : 219-220), 林庆姬 (1996 : 4) 참조
周法高 《中国古代语法》, 中华书局, (1990 : 215-221), 朱霞 (2002 : 1) 참조

(100) 桃之夭夭，有賁有實。(詩經·桃夭)

싱싱한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맺고 과육에 살이 올랐네.

어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위 예문의 ‘有’를 접두사(詞頭) 즉 어조사(語助詞)로 간주한다. 楊樹達(1984)은 이러한 ‘有’를 접두사(語首助詞)로 보았고 潘永中(1982), 楊伯峻, 何樂士(2001) 등도 이러한 ‘有’를 조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儲澤祥(1997)은 이러한 ‘有’를 ‘존재’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보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여기서의 ‘有’를 동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대한어에서 ‘有’는 종종 단음절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었는데 ‘有’가 명사 이외에 예(100)의 ‘賁’과 ‘實’ 등과 같이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⁵⁷⁾

林庆姬(1996)는 명사와 형용사의 접두사(詞頭)로서의 ‘有’의 용례는 《시경》 이후 더 이상 보편화 되지 못하고 도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필자도 여기서의 ‘有’를 접두사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며 이러한 용법의 ‘有’를 단독으로 운영되는 동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진시기 문헌 속에서는 아래의 예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⁵⁸⁾

(101) 舜有不孝之行。(呂氏春秋·當務)

순임금은 불효한 행동이 있었다.

(102) 南辛氏有才子八人。(史記·五帝本紀)

남신씨에게는 재자 여덟이 있었다.

57) 林庆姬(1996 : 4-5) 참조

58) 朱霞(2002 : 1), 張双棟, 《呂氏春秋譯註》, 吉林文士出版社(1993 : 303), 오초재, 오조후 저, 최영은 역, 《(新完譯)古文觀止.上》, 명문당(2009 : 74) 참조

예(101)은 “ ‘순임금(舜)’ 이 ‘불효한 행동(不孝之行)’ 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102)는 “ ‘남신씨(南辛氏)’ 가 ‘재자 여덟(才子八人)’ 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여기서의 ‘有’ 는 동사로 ‘소유(領有), 종속(領屬)’ 의 의미를 나타낸다.

선진, 양한시기에 보이는 ‘有’ 의 용례로는 아래와 같은 예들도 있다. 59)

(103) 南有乔木，不可休思。(诗经·周南·汉广)

남산에 높은 나무가 있으니 쉴 수가 없네.

(104) 山有榛，隰有苓。(诗经·邶风·简兮)

산에는 개암나무가 있고 진펄에는 감초풀이 있네.

(105) 丘中有麻，彼留子嗟。(诗经·王风·丘中有麻)

언덕 가운데 삼밭이 있으니 저기 임(子嗟)을 머물게 했네.

예(103)의 ‘남산(南)’, 예(104)의 ‘산(山)’, 예(105)의 ‘언덕(丘中)’ 은 모두 장소로 여기서의 ‘有’ 는 ‘~에 ~가 있다’ 라는 ‘존재’ 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부터 ‘有’ 의 ‘소유’ 의 의미는 소유공간이 장소로 전환되면서 ‘존재’ 의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朱霞(2002)는 ‘有’ 의 앞에 오는 주어가 시간사일 때 ‘有’ 가 보다 더 정확한 ‘존재’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有’ 앞에 시간사가 오는 용례는 《尚书》에서 처음 등장하였다.⁶⁰⁾

(106) 古有夏先后，方懋厥德，罔有天灾。(金文尚书·伊训)

옛날 하의 선왕들은 그 덕에 힘쓰셨기에 천재가 없었네.

59) 朱霞(2002 : 1), 유교문화연구소, 《시경》,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34, 151, 300) 참조

60) 朱霞(2002 : 1), 《尚书》, ebook, baidu.com 참조

(107) 今有平原广野於此。(墨子·兼爱下)⁶¹⁾

오늘날 여기에 평원과 넓은 들판이 있다.

이러한 예문의 출현은 소유 공간인 장소가 은유적 기제를 통해 시간으로 전환되어 동사 ‘有’가 보다 완전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앞에 시간사가 출현한 ‘有’ 존재문은 춘추전국(春秋战国)시기에 사용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소유’의 ‘有자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에서 남송(唐宋)시기에 출현한 ‘有’의 용례는 선진시기와 거의 비슷하나 아래와 같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有’의 용례가 출현하였다.⁶²⁾

(108) 疑有二种：一烦恼疑；二无记疑。(六朝·佛经)

의혹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번뇌의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의혹이다.

(109) 净有二种：一者智净；二者行净。(六朝·佛经)

간결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의 간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행의 간결함이다.

呂叔湘(1999)은 이 구문의 ‘有’는 ‘열거’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張豫峰(1999) 또한 여기서의 ‘有’는 ‘열거’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朱霞(2002)는 ‘열거’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가 허화된 것이라 기술하고 그 이유는 이러한 구문 속의 ‘有’를 ‘존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

61) 金學主 譯著,《新完譯 墨子 上》, 明文堂 (2003 : 211) 참조

62) 朱霞(2002 : 2), 馬世曉 等,《優婆塞戒經》, 西泠印社出版社 (2004) 참조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108)은 ‘의혹됨에는 두 가지가 있다’의 의미로 ‘의혹됨이 두 가지의 하위분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포함, 소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열거’란 소유물을 두 개 이상 기술한 것으로 ‘有’가 나타내는 의미는 ‘포함, 소속’의 의미에 가깝고 이러한 ‘有’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포함, 소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有’의 용례는 현대 중국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송시기에는 위에서 제시한 용례 이외에 새로운 용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시기는 의미 변화가 적은 비교적 안정화된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元明清시기에는 ‘추측’의 의미가 새롭게 출현하였다.⁶³⁾

(110) 当初我有一个孩儿来，十八年前与了一个官人去了：

如今有啊，也直官人这般大年纪。(矣汉卿·刘夫人庆赏五侯宴)

당초 나에게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17년 전에 관인과 함께 떠났다. 만약 지금 있다면 관인만한 나이 정도일 것이다.

(111) 僧途本有百来僧，如今随缘散去。(入唐求去巡礼行记)

스님이 다니는 길은 본래 백여 명이 다닐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점차 사라졌다.

吕叔湘(1999)은 예(110)과 예(111)과 같은 용례의 ‘有’를 ‘존재’의 하위분류로 귀납하였다. 朱霞(2002)도 객관의 존재는 실제적 존재이고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객관적 존재가 바로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에서 허화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张豫峰(1998)와 张登歧는 이러한 용례의 ‘有’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63) 朱霞(2002 : 2), 释圆仁,《入唐求法巡礼行记校注》, 花山文艺出版社 (2007 : 294) 참조

고 하였다. 즉 소유자가 소유한 것이 어떤 성질에 대한 추측량일 경우 동사 ‘有’가 ‘~만 하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赵元任(1979)도 여기서의 ‘有’는 소유에서 인신된 특수한 용법이라고 하였다. 예(111)의 ‘有’는 ‘스님이 다니는 길(僧途)이 ‘백여명이 다닐 정도(有百来)’만큼의 크기가 된다는 길의 성질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수량적으로 추측한 것이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바를 추측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출현한 예(110), 예(111)과 같은 문형은 소유의 대상이 상태로 전화되어 ‘소유’의 의미가 ‘추측’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비교’를 나타내는 ‘有’의 용례도 새롭게 등장하였다.⁶⁴⁾

(112) 我说起来，冤有天来大。(西游记·第8回)

말하자면 억울함이 하늘만큼 크다.

(113) 我这仇恨，结的有海来深。(金瓶梅·第92回)

나의 원한은 그 얽힌 것이 바다만큼 깊다.

(114) 那里有哥这样大福?(金瓶梅·第20回)

어디에 오라버니만큼 큰 복이 있겠어요?

예(112)-예(114)의 ‘有’는 ‘비교’를 나타내는 기능어적 측면이 강하고 실제적 의미는 허화된 것으로 보인다. 张豫峰(1998)은 이러한 구문은 ‘有’를 통해 비교주체와 비교객체의 어떤 성질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고 형식적으로 비교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성질에 대한 추측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112)-예(114)와 같은 용례는 ‘추측’의 의미가 재분석과정을 통해 ‘비교’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朱霞(2002)도 ‘비교’의 의미는 ‘추측’의 의미에서 허화된 것이라 하였다. 즉 비교 객체의 성

64) 朱霞(2002 : 2) 참조

질을 통해 비교 주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다.

명, 청시기 이후 ‘有’가 ‘출현, 발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65)

(115) 在《纪效新书》的基础上又有了新的发展。(练兵实纪)

《纪效新书》의 기초위에 또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116) 学问必定大有进步了。(上古秘史)

학문은 분명 크게 진보할 것이다.

예(115), 예(116) 중의 ‘有’는 문법화를 통해 ‘소유나 존재’의 의미가 허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들은 현대 한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는 ‘有’의 의미가 이미 현대 중국어와 같은 정도로 상당히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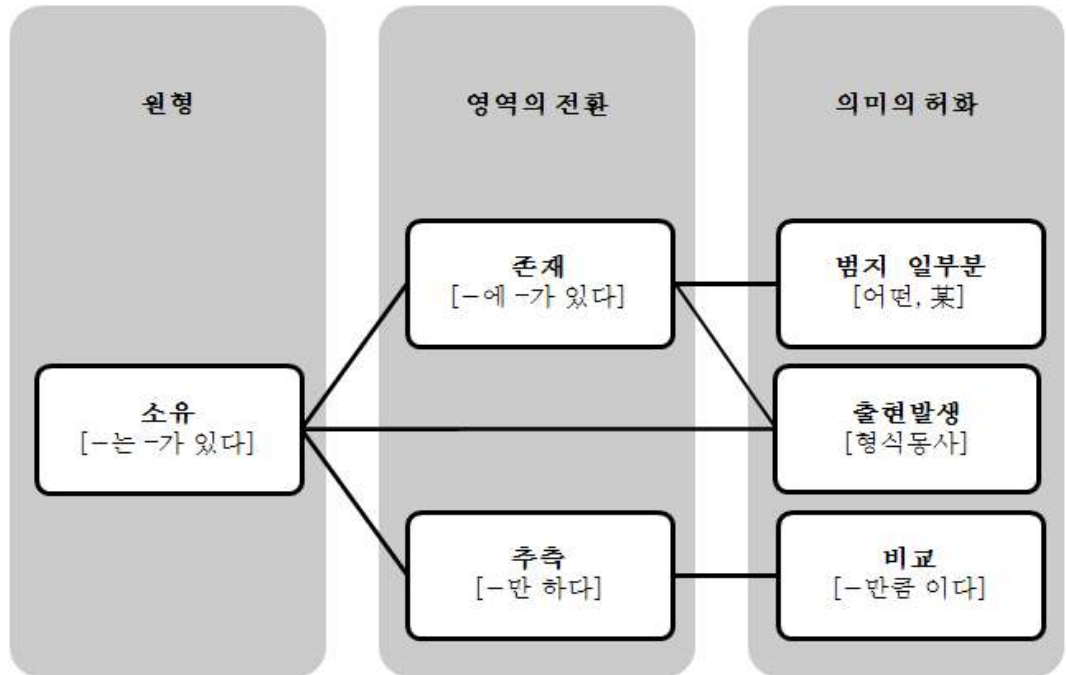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통시적 관점에서 ‘有’의 의미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선진, 양한시기에는 ‘有’의 원형의미인 ‘소유’의 의미가 영역의 전환을 통해 ‘존재’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포함, 소속’ 의미로도 전의되었다. 비교적 의미변화가 적은 위진 남북조시기를 지나 원,명,청시기에는 ‘有’가 문법화를 통해 비교기능을 가진 기능적 어휘로 확장되었고 ‘有’의 실제적 의미가 허화되어 문장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형식동사로 확장되었다.

4.5. 소결

‘有’의 다양한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有’는 수평으로의 확장과 수직으로의 도식을 통해 <그림 4>와 같은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즉

65) 북경대 코퍼스(CCL) 참조

원형의미를 토대로 직선 혹은 방사의 형태로 의미 연쇄를 이루며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림 4 - 의미망>

<그림 4> 에서 보이듯 ‘有’ 는 ‘소유’ 라는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원형으로 ‘존재’, ‘추측, 비교’, ‘출현 또는 발생’, ‘범지’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확장은 은유, 환유, 영역의 전환, 문법화 등과 같은 인지적 기제를 통해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有’ 의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림 4> 와 같이 ‘소유’ 라는 원형 의미를 중심으로 상호 관련성을 띄며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통시적 관점에서 ‘有’ 의 의미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선진, 양한 시기에는 ‘有’ 의 원형의미인 ‘소유’ 의 의미가 소유공간의 전환을 통해 ‘존

재'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비교적 의미 변화가 적은 위진 남북조시기를 지나 원, 명, 청 시기에는 소유대상의 전환을 통해 '소유'의 의미가 '추측'의 의미로 허화되었고 문법화를 통해 '추측'의 의미가 비교기능을 가진 기능적 어휘로 확장되었으며 또한 '소유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문장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형식동사로 허화되었다.

이처럼 동사 '有'의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관련성을 매개로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V. ‘有’의 지도 방안

제 5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동사 ‘有’의 의미관계성을 토대로 이를 어휘 교육적 측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어휘학습이다. 중국어가 제 2언어⁶⁶⁾ 즉 외국어인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습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단편적으로 어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중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적인 어휘지도 방식은 개념위주 즉 의미제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교사가 단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주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어휘학습은 부차적인 것이라 인식되어 사전적, 문맥적 의미 제시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방법으로 다량의 어휘를 수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인지능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어휘를 장기적으로 기억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제 4장에서 분석한 동사 ‘有’의 의미망을 어휘학습에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동사 ‘有’의 지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인 ‘语文’와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인 ‘중국어 I’ 속에 출현하는 ‘有’를 통계 내어 <표 3> 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⁶⁷⁾

66) 제 2언어란 사람들이 제 1언어를 습득한 후 학습하여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사람이 중국어를 학습하여 사용하였다면 이 사람의 제 1언어 즉 모국어는 한국어가 되고 제 2언어 즉 외국어는 중국어가 되는 것이다.

67) ‘语文’은 중국교육위원회가 1987년 춘계에 발표한 6년제 초등학교 교과서로 인문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을 통계 대상으로 삼았고 ‘중국어 I’은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차 교육과정 국, 김정 교과서로 채택한 정진 출판사, 부민문화사, 진명출판사, 시사중국어사, 천재교육의 ‘중국어 I’을 선

	어문	정진	부민	시사	진명	천재교육
소유	26.5	51	53	65	43	33.3
존재	47.5	45	47	35	57	33.3
출현,발생	0.65	0	0	0	0	0
추측	1.3	0	0	0	0	33.3
비교	0.2	4	0	0	0	0
범지	16.9	0	0	0	0	0
일부분	7.0	0	0	0	0	0

(%)

< 표 3 >

<표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교과서에 비해 한국 교과서에 출현하는 ‘有’ 는 ‘소유’ 와 ‘존재’ 가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 두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들의 출현 빈도는 현저히 낮았다. 다의어는 의미별 다양한 용례를 알고 있어야 다의어가 사용된 문장의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살펴 본 ‘有’ 의 의미관계성을 어휘 교육적 측면에 활용하여 ‘有’ 의 다양한 의미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5.1. 마인드맵(Mind Map)을 활용한 지도 방안

마인드맵은 영국의 심리학자인 Tony Buzan(1999)이 두뇌이론을 바탕으로
 택하였다.

로 개발한 학습기법이다. 이는 학습자가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지도 그리듯이 배열함으로써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기법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다.⁶⁸⁾ 이렇듯 마인드맵은 다양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의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마인드맵 학습 방법을 다의어 지도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학습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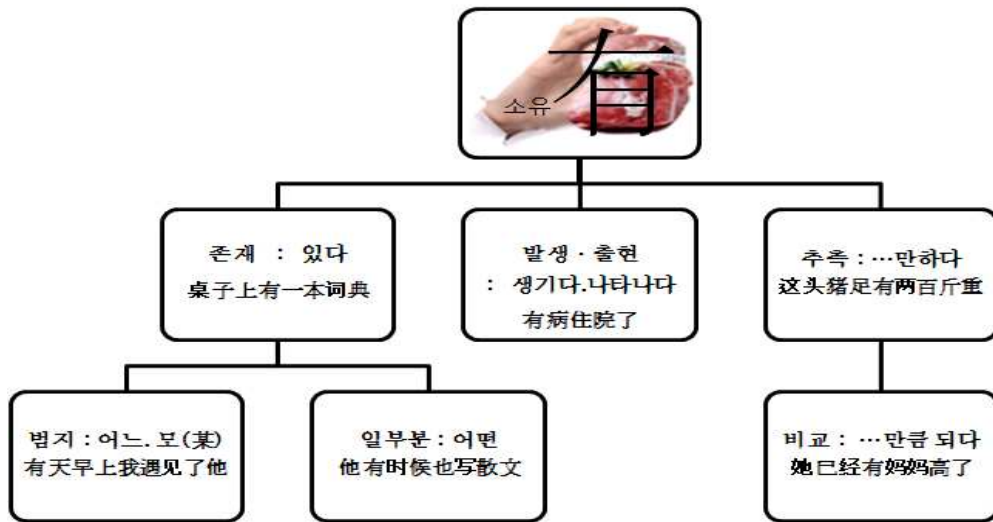
첫째, 마인드맵은 학습한 개념들을 학습자 본인만의 이미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모형으로 작성법이 쉬워 누구나 재미있게 제작할 수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중요한 핵심어들을 지도 그리듯이 배열해 봄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다의어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들을 장기적으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개념적 정의와 시각자료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통합교과적인 어휘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을 이용한 ‘有’의 지도방안은 아래와 같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有’의 지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제 1단계는 의미 제시 단계로 이는 마인드맵의 준비단계이다. 1단계에서 교사는 ‘有’의 원형의미를 제시하고 시각적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 설명이 끝난 후 다시 학습자들에게 ‘有’의 확장의미들을 제시한다.

제 2단계는 학습자가 ‘有’의 다양한 의미항목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1단계에서 제시한 각 의미 항목에 대해 다양한 예시문을 제시하고 관련된 일련의 질문들을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각각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를 판단한다.

68) 토니부잔 저, 박수현역, 《생각의 지도위에서 길을 찾다》, 부잔코리아 (2010 : 7) 참조

제 3단계는 마인드맵 작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학습한 ‘有’의 다양한 의미를 재료로 학습자가 자유롭게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새로 학습된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휘연습을 강화한다.



<그림 5>

<그림 5>는 ‘有’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재료로 그린 마인드맵의 예시이다. <그림 5>와 같이 마인드맵 작성시 한 단어가 내포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의 실제적 예문들을 함께 제시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의어를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마인드맵을 활용한 다의어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어휘학습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어휘를 장기적으로 기억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어휘력 신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휘력 향상을 통해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5.2. 다의의 나무 그리기를 활용한 지도 방안

‘다의의 나무’란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파악하여 그 의미들을 나무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의어를 지도할 경우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다의의 나무’ 그리기를 활용한 ‘有’의 지도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有’의 각 의미항목으로 <보기>를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다양한 예문을 제시한다.

<보기>

- ① 소유
- ② 존재
- ③ 출현 발생
- ④ 추측
- ⑤ 비교
- ⑥ 범지
- ⑦ 일부분

我有一个弟弟。 → ①

他有病了。 → ③

这儿有一本书。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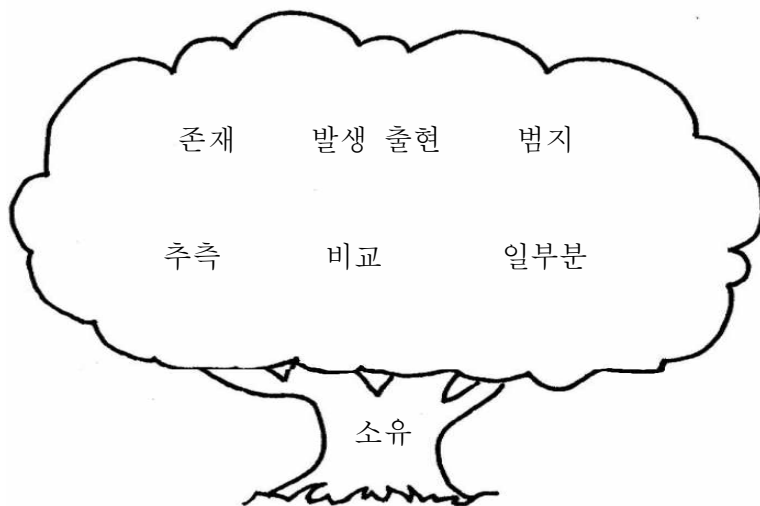
这场雨有的地方下雨了，有的地方没下雨。 → ⑦

水有三米多深。 → ④

有一天他来了。 → ⑥

她有她妹妹那么高了。 → ⑤

학습자는 <보기>와 예문을 연결해 보면서 ‘有’의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학습하고 이와 동시에 ‘有’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파악한다. 의미 파악이 끝난 후 <그림 6> 과 같이 자유롭게 다의의 나무 그리기를 한다.



<그림 6>

다의의 나무 그리기를 통한 다의어 학습은 학습자에게 동사 ‘有’의 다양한 의미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사이의 관계성을 보다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5.3. 의미 심층 학습을 통한 지도 방안

어휘 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어휘의 개별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의미를 적절한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휘의 형태 및 의미, 화용에 대한 지식까지 습득하여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적합한 어휘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내용과 관련된 어휘학습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습에 적합한 지도 방안이 바로 ‘어휘 심층 학습’이다. ‘어휘 심층 학습’이란 새로 학습하는 어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나아가 다른 어휘와의 관계성까지도 고려해 보는 학습방법이다. 어휘 심층 학습은 일반적으로 ‘연상하기, 이해하기, 일반화하기’의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연상하기는 어휘에 대하여 단순히 생각해 보거나 간단한 문장 등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이해하기는 연상하기에서 학습된 단어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 넣기, 단어 분류해보기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일반화하기는 자신의 말로 단어 정의하기, 짧은 글 지어 보기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진행된다.⁶⁹⁾

앞에서 언급한 ‘연상하기 - 이해하기 - 일반화하기’의 학습과정을 ‘有’의 학습모형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1) 연상하기 단계

‘有’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 문장도 함께 제시한다. 이때 문장은 비교적 간단한 문장으로 제시한다.

69) 정수진 (2009 : 40) 참조

(2) 이해하기

- ① 교사는 학습자에게 원형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이 원형의미에서 확장 의미로 전의되어가는 ‘有’의 의미 확장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를 설명한다.
- ② 사전보다 간단한 수준에서 확장의미를 분류하고 확장 의미는 사용빈도와 유용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해 제시한다.
- ③ ‘有’는 이원동사로 통사적 환경이 의미 구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가르친다.

(3) 일반화하기

- ① 빈칸에 적절한 단어 넣기나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등을 통해 어떤 문맥 및 상황에서 ‘有’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② ‘有’와 결합하는 단어와 연결해 보기,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나눠보기, 의미적 연관성 설명하기 등을 평가에 활용하여 ‘有’를 능동적인 어휘로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 다의어의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해 지고 이에 다의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학습모형은 학습자 참여적인 모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다의어의 의미 확장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해 봄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미를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다양한 문맥

및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의사소통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위에서 ‘有’의 의미관계성을 활용한 효과적인 다의어 지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앞에서 제시한 학습모형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마인드맵, 다의의 나무 그리기, 어휘 심층 학습’은 모두 학습자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모형으로 기존의 주입식, 설명식 위주의 어휘학습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 함께 제시한 학습모형을 융합하여 지도한다며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有’의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의미간의 관계성을 인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有’의 다양한 의미들을 학습할 수 있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 중국어 동사 ‘有’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다의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들의 분화과정과 그 의미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有’에 대한 연구는 개별의미연구와 의미현상연구 위주로 의미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20세기 언어학 분야에 등장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토대로 ‘有’가 나타내는 의미들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有’에 대해 기존의 사전류와 어법서들이 기술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동사 ‘有’가 ‘소유’, ‘존재’, ‘출현 또는 발생’, ‘추측’, ‘비교’, ‘범지’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각각의 의미들이 서로 관련성이 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을 매개로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有’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의 관계를 공시적,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有’의 원형의미가 어떠한 의미 확장 기제를 통해 확장의미로 전의되었는지에 대해 인지적 관점에서 기술, 분석하였다.

공시적 관점에서 ‘有’의 의미변화를 살펴본 결과 ‘有’의 원형의미는 ‘소유’로 이 원형의미는 영상도식, 은유 등의 확장 기제를 통해 그 공간영역과 대상영역이 전환되면서 확장의미로 전의되었다. 공간영역이 ‘사람 → 장소’로 확장되어 ‘소유’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로 전환되었고 ‘공간 → 시간’의 방향으로의 확장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대상영역이 ‘구체 → 추상’, ‘사물 → 상태’로 확장되면서 ‘有’는 ‘추측’, ‘출현 또는 발생’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문법화 과정을 통해 ‘有’의 실제적 의미가 허화되어 ‘범지’ 등의

의미를 나타내었고 동사성 성분과의 결합을 통해 문장 중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형식동사로 허화되었다. 또한, 재분석 과정을 통해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적 어휘로 변화하였다.

또한, 통시적 관점에서 ‘有’의 의미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선진, 양한 시기에는 ‘有’의 원형의미인 ‘소유’의 의미가 영역의 전환을 통해 ‘존재’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비교적 의미 변화가 적은 위진 남북조시기를 지나 원, 명, 청 시기에는 영역의 전환을 통해 ‘소유’의 의미가 ‘추측’의 의미로 허화되었고 문법화를 통해 ‘추측’의 의미가 비교기능을 가진 기능적 어휘로 확장되었으며 또한 ‘소유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문장에서 구체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형식동사로 변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有’의 다양한 의미들은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큰 범주를 형성하고 범주 내의 의미들은 원형의미를 토대로 직선 혹은 방사의 형태로 의미 연쇄를 이루며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有’는 소유자와 소유대상의 확장이 매우 유연하며 공간적인 소유, 시간적인 소유, 구체적인 소유, 추상적인 소유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有’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의어 ‘有’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나아가 분석한 ‘有’의 의미관계를 어휘 교육적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에 ‘마인드맵’, ‘다의의 나무 그리기’, ‘어휘 심층 학습’의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법을 통해 학습자가 ‘有’의 의미간의 관계성을 인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적으로 동사 ‘有’를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동사 ‘有’의 활용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辭典

- 袁暉 主編(2001),『現代漢語多義詞詞典(修訂版)』,書海出版社.
- 呂叔湘,丁聲樹 編輯(1980),『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 孟琮 等 (1999),『漢語動詞用法詞典』,商務印書館.
- 俞士汶 等 (2003),『現代漢語語法信息詞典』,清華大學出版社.

單行本

- 馬建忠(1898),『馬氏文通』,商務印書館.
- 史存直(1980),『語法三論』,上海教育出版社.
- 丁聲樹(1999),『現代漢語語法講話』,商務印書館.
- 劉月華等 著(2001),『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商務印書館.
- 呂叔湘 主編 (1999),『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
- 呂叔湘(1982),『中國語法要略』,商務印書館.
- 朱德熙 主編 (1982),『語法講義』,商務印書館.
- 黎錦熙,劉世儒(1957),『現代漢語語法教材(第一編)』,商務印書館.
- 黎錦熙(1997),『新著國語文法』,商務印書館.
- 陳忠(2005),『認知語言學研究』,山東教育出版社.
- 陸慶和(2006),『實用對外漢語教學語法——實用對外漢語教學叢書』,
北京大學出版社.

- 吕叔湘著, 马庆株 编, 심숙현 옮김(2002), 『현대 중국어 문법연구입문』, 학고방.
- 胡裕树, 范晓 主编, 김현철 외 共译(2004), 『현대 중국어 동사 연구』, 학고방.
- 范晓 著, 김난미 외 역(2007), 『三个平面的语法观』, 차이나하우스.
- 중국어언어연구회 编(1992), 『중국어 동사 연구』, 도서출판 서울.
- 임지룡 외 (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 베른트 하이네 저/ 이성화 구현정 번역(2004), 『문법의 인지적 기초』, 도서출판 박이정.
- 이기동(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國內 論文

- 林庆姬 (1996), 「‘有’ 자 용법 연구」,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송경옥(2004), 「동사 ‘有’ 의 문법화 현상 연구」, 『중어중문학』 제34집.
- 박기현(2005), 「다의어의 의미구조와 ‘有’ 의 의미망」,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5집.
- 박선영(2005), 「現代中國語 有字文과 ‘有+VP’ 구조」,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우(2004), 「‘소유’ 와 ‘존재’ 표현으로서의 ‘有」, 『새얼語文論集』 제16집.

- 장호득(2006), 「존재, 소유, 관계에 대한 통사 및 의미구조의
한중대비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 11집.
- 刘晓红(2009), 「한국어 ‘있다’ 와 해당 중국어 표현의 대조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라(2005), 「‘있다’ 의 의미 확장과 다의어 체계」,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 9권.
- 박종한(1997), 「인지문법에 의한 현대중국어의 다의어 연구」,
『중국언어연구』 5권.
- 임지룡(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 이민우(2000), 「차원 형용사 ‘대(大)’ 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지
의미론적 고찰」, 『중국언어연구』 12권.
- 맹주익, 권선아(2009), 「‘都’ 의 의미확장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5집.
- 김현희(2006), 「현대중국어 ‘在’ 에 대한 인지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정(2010), 「동사 ‘걸다’ 의 인지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제32호.
- 종결(2011), 「한국어 ‘먹다’ 와 중국어 ‘吃(chi)’ 의 의미 확장 비교」,
『국어문학』 51권.
- 로금송(2012), 「‘오르다’ 의 인지의미 분석」, 『중국조선어문』 2012년
제1호.
- 주현정(2010), 「탐구 학습을 통한 다의어의 의미 지도 연구 :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진영(2011), 「『노걸대언해』 · 『박통사언해』 의 ‘有’ 자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지현(2005), 「고등학교 중국어 어휘지도 실태 및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2009),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문학과 언어』 제31집.
- 주현정(2010), 「탐구 학습을 통한 다의어의 의미 지도 연구 :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2010), 「마인드맵을 활용한 중국어 어휘 지도 방안 :
形·音·義 접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우(2012), 「의미 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언어학연구』 제22호.

國外 論文

- 瞻开第(1981), 「‘有’字句」, 中国语文, 第一期.
- 陈宁萍(1987), 「现代汉语名词类的扩大-现代汉语动词和名词分界线的考察」,
中国语文, 第5期.
- 尹钟宏(2002), 「‘有’字句」, 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易正中(1994), 「‘有’字句研究」, 天津师大学报.
- 高耀墀(1975), 「关于‘有’的用法」, 语文教学通讯.
- 张豫峰(1998), 「‘有’字句研究综述」, 人大复印资料语言文字学, 第9期.
- 张豫峰(1998), 「表比较的‘有’字句」, 语文研究, 第4期.
- 张豫峰(1999), 「‘有’字句的语义分析」, 中州学刊, 第3期.
- 张豫峰(1999), 「‘有’字句的语义分析」, 中州学刊, 第3期.
- 朴起贤(2004), 「现代汉语动词‘有’的语义功能」, 南开语言学刊.

- 胡袁园(2005), 「‘有’字句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伍文英(2003), 「‘有+VP’格式研究」,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储泽祥 等(1997), 「汉语存在句的历史性考察」, 古汉语研究4.
- 吕吉宁(2004), 「‘有’字句的语法化考察」, 北京语言大学, 硕士学位论文.
- 朱霞(2002), 「‘有’字的虚化历程」, 语文学刊.
- 李霞(2010), 「‘有’字的词性释读」, 绥化学院学, 第30卷 第4期.

ABSTRACT

A Study on Analyzation of the meanings of chinese verb ‘有’

Nam SuJi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ve considered the modern chinese verb ‘有’ from prospective of cognition.

I analyzed the prototype meaning of the verb ‘有’ and how it spread to the extended meaning by cognitive mechanism such as Image schemes, Metaphor, Grammaticalization, studied the meaning development process of it in a diachronic approach.

Through the above analysis, I found that the various meaning of the verb ‘有’ forms one large category based on inter-relationship and the meanings in the category have also a meaning chain with radial form, eventually organize a semantic network. In addition to

the above findings, each meanings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it is organized in succession upon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I considered how we can utilize the meaning relationship of the verb ‘有’ in language teaching aspects. Accordingly I suggested some guidance measures such as ‘Mind map’ , ‘Draw tree with various meanings’ , ‘A study on an in-depth model of learning vocabulary’

I eagerly look forward to this grammatical analysis is of help to education and learning spheres.

Key Word : prototype theory, prototype meaning, extended meaning, semantic network